



가천대학교

국내 최초 반도체 대학

배터리 특성화 대학원

하와이 캠퍼스

스타트업칼리지 '코코네스쿨'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가천대 길병원

국내 최초 연구중심병원

국내 최초 닥터헬기

국내 최초 중성자 암치료기

사립대 최초 국가지정 암센터

경인 최초 CAR-T 암치료센터



본지 160호 (사)한국차문화협회



차와 사람을 잇는
(사)한국차문화협회 계간 소식지 차문화

2025 Vol. 160

겨울

茶文化



겨드랑이에 바람이 이는 것을 느껴보자



습재(習齋) 권벽(權壁:1520-1593)

권벽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을사사화 때 모든 교유를 끊고 오로지 학문에 만 힘썼다. 명종이 즉위하자 예조참의, 장례원판결사를 역임하고 춘추관기주관이 돼 '중종실록', '인종실록', '명종실록'의 편찬에 깊숙하게 참여했던 인물이다. 그는 다시를 많이 남긴 것으로 유명하고, '겨울밤에 차를 달이다'는 그의 세계관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시다. '겨울밤에 차를 달이다'는 노동의 「다가」를 떠올리게 만드는 시다. 그는 이 시에서 겨울밤 눈 녹인 물로 차를 끓여 마시는 정취를 읊었다. 긴 겨울밤에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끝나자 차를 달이는 숯불이 다 타 가는데, 눈을 녹여 밤이 이속하도록 차를 마시며 그 맛의 아름다움을 미인에 비유했다. 아래 시는 습재집 권1에 실려 있다.

동야전차(冬夜煎茶) - 겨울밤에 차를 달이다

좋은 차를 눈 녹인 물로 달이니 / 옛사람은 이를 경국지색에 비겼지
마른 창자는 황금빛 싹의 맛을 본디 좋아하고 / 끓는 물은 돌솥에서 반가운 소리 올리네.
화로 속의 불기운이 모두 타 버리니 / 성 위의 짧고 긴 종소리 하나둘씩 사라지네.
오늘에야 노동의 말을 비로소 믿겠으니 / 두 겨드랑이에 맑은 바람이 차례대로 생겨나네.

지금처럼 공기가 나쁘지 않았던 조선시대는 눈으로 찻물을 사용하기도 하였나 보다. 눈 녹인 물로 차를 끓이는 정경이 눈에 선하다. 연한 찻잎을 황금빛 싹으로 설명하는 시인의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는 듯하다. 차가 끓는 동안 여유와 기다림의 미학이 그대로 느껴지는 시어가 참으로 상큼하다. 당나라의 시인 노동의 「다가」에서 차를 마신 후 몸의 변화를 노래한 구절이 있다. 그중에서 '여섯 번째 잔을 마시니 신선과 통하고, 일곱 번째 잔은 마시지도 않았는데, 겨드랑이 사이로 맑은 바람이 일어난다.'라는 구절이 있다. 그것을 빗댄 것이다. 당나라 노동의 「다가」는 약간의 과장이 있다. 하지만 차인이라면 이런 느낌을 느꼈을 것이다. 이 겨울 혼자서 겨울밤에 신선이 되는 꿈을 꾸어 보면 어떨까. ☯

[표지 이야기]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다. 직근성인 차나무는 한 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성장한다. 그래서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눈보라에도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킨다. 차나무의 강인한 근성과 울긋불긋한 절개는 차인들이 달고 싶은 덕목이기도 하다.

(사)한국차문화협회(사)규방다례보존회 소식지

발행·편집인 최소연 | 편집장 고만송

발행처 (사)한국차문화협회 | (사)규방다례보존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13길 34, 3층

T. 02) 719-7816, 7817 | F. 02) 719-781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599, 인천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110호

T. 032)468-3595 | F. 032)461-2350

홈페이지 www.koreatea.or.kr | <http://gyubangdarye.co.kr>

이메일 koreatea1991@naver.com | gyubangdarye@naver.com

茶文化

2025 Vol. 160 겨울



茶半香初 • 내 안의 향기를 찾아

004 이사장 인사말 | 미래의 자랑스러운 차인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탄탄한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006 특집 1 | 인설차문화전 차예절경연대회

020 특집 2 | (사)한국차문화협회 몽골 해외워크숍

038 특집 3 | 협회 임원 보수교육 실시

茶香共感 • 차의 맛, 차의 멋

042 건강한 삶 | 노인성 난청

044 지부장 칼럼 | 고려 팔관회를 통해 본 의례문화(2)

048 선조의 품격 | 고려 차시(茶詩) 이야기

052 회원 글발 | 차(茶), 차(茶), 차(茶)

073 협회 소식 | 인설차문화전 차예절경연대회 온라인 심사 외

085 규방다례 소식 | 2025년 인천시 무형유산 공개행사 규방다례 정기전송 시연

茶情茶感 • 찻잎이 맺어준 인연

089 지부사랑방
경남지부 / 대구경북제1지부 / 서울제1지부 / 아산지부 / 인천지부 / 전남지부
충북지부

108 자격검정 시행 공고

109 협회 발전 기부금 모금액 내역 및 우수료 명단

미래의 자랑스러운 차인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탄탄한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차는 단순한 예절을 넘어, 마음을 나누는 문화입니다

사랑하는 차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 달력 한 장만이 남았습니다. 신년하례식에서 덕담을 나누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일 년이 흘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백구과극(白駒過隙)’이라 하여 ‘흰 망아지가 문틈 사이를 달려 지나가듯 세월이 덧없이 빠르다’라는 고사가 있습니다. 그 말이 실감 납니다.

지난 2월에는 30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동계연수회를 성대히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인설고(故) 이귀례 명예이사장님의 타계 10주기를 맞이하여 『인설 이귀례 평전』을 발간하였습니다. 이 평전은 우리 차인들에게 본보기가 나침판이 되어, 차문화의 정신을 더욱 굳건히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3월에는 제23기 대학원 입학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각 지부장님과 임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덕분에 입학식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 6월에는 제45회 차의 날 기념식 및 제36회 전국 차인큰잔치 차음식경연대회에서는 K-푸드를 선도하는 우수한 차음식 명인들이 다수 배출되었습니다. 출품된 100여 점의 작품은 모두 높은 완성도를 인정받아 심사위원과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7월에는 이수자 심의를 통해 서남경 전남지부장님과 변명선 서울제1지부 이사님이 새롭게 규방다례 이수자로 선정되었고, 8월 하계연수회에서는 저를 비롯해 차영민, 김가영 부회장님과 함께 ‘경수연 진헌다례’를 봉행하였습니다. 경수연 진헌다례는 앞으로 3년마다 정례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며, 이번 행사를 통

해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통 다례문화의 격을 한층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9월에는 임원 해외워크숍으로 몽골을 방문, 후레대학교의 초청으로 생활다례와 선비다례를 시연하였습니다. 이는 몽골 현지에서 공식적으로 규방다례 행다례가 선보인 첫 사례로, 한국 차문화의 국제 교류에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11월에는 제26회 인설차문화전 및 차예절경연대회를 인천도호부관아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유치부에서 일반부에 이르기까지 여섯 개 부문에 걸친 참가자들의 열정 어린 모습 속에서, 인설 명예이사장님께서 염원하셨던 차문화의 확산과 정신이 실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임원 보수교육과 2025년 규방다례 정기전송 시연이 펼쳐져, 인천시민과 회원들에게 선보였습니다. 이렇듯 한 해 동안 협회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한국 차문화의 발전과 보급에 앞장서 왔습니다. 모든 것은 회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차는 단순한 예절을 넘어 마음을 나누는 문화입니다.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다가올 수 있도록, 열린 찾자리와 교류의 장을 자주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협회 또한 실내 중심의 행사뿐 아니라 외부 행사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찾자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더해진다면, 우리의 차문화는 더욱 널리 꽃피울 것입니다.

남은 한 달, 따뜻한 찻잔의 온기처럼 마음을 나누는 평온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겨울

이사장 **최소연**

인천광역시 무형유산 규방다례 보유자
(사)한국차문화협회 이사장, (사)규방다례보존회 이사장

제26회 전국 인설차문화전 차예절경연대회

인설이 뿌린 씨앗, 인설차문화전에서 꽃을 피우다

지난 2025년 11월 1일 인천시 인천도호부관아(재현시설물)에서 제26회 전국 인설차문화전 차예절경연대회가 화려하게 펼쳐졌다. 단풍이 곱게 물들어가는 인천도호부관아에 메인 무대가 설치되고 각종 차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면서 전국 인설차문화전 차예절경연대회가 시작되었다. 최소연 규방다례보전회 이사장과 김천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이사장, 도성훈 인천광역시 교육감, 최미리 가천대 수석부총장, 이태훈 가천길병원장 등 내외 귀분 30여 명과 국내외 차인 및 일반 시민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이 시작되었다. 식전행사로 가천대학생들의 선비다례 시연과 최지원 인천지부장의 경과보고, 국민의례, 인설 고이귀례 명예이사장님을 비롯한 선고차인에 대한 묵념 등이 진행되었다.



인설차문화전 개회식 장면

예선을 거친
청소년들
기량을 맘껏 뽐내다



제26회 전국 인설차문화전 차예절경연대회는 지난 2000년에 제1회를 시작으로 올해로 26회째를 맞이하고 있는 전국 최대 규모의 청소년 차예절경연대회이다. 오프라인으로 지난 9월부터 참가 신청을 받고, 1차로 지난 10월 21일 오프라인으로 차예절경연대회 심사를 보았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한 유치부, 초·중고등부, 대학부 학생 100여 명이 참가하여 1차 예선 심사를 마쳤다.

심사위원장인 최소연 규방다례 보유자가 참석한 가운데 심사위원으로는 박광옥 전승교육사, 이기분 서울제1지부 지부장, 최지원 인천지부장, 강희옥, 이금숙, 조영아 이수자가 심사를 맡았다.

제27개 지부에서 예선을 거친 후 1차로 오프라인으로 심사를 마친 후 2차 본선 진출자들이 11월 1

일 인천시 인천도호부관아에 모였다. 참가 학생은 일반인 포함 150여 명으로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등 총 6개 분야로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아낌없이 보여주었다. 규방다례보존회에서는 전날 캐노피 20개를 비롯하여 테이블 75개, 의자 350개와 음향 등을 미리 준비하여 대회를 차질없이 진행했다. 최소연 규방다례 보유자도 대회 전날 경연장 곳곳을 둘러보며 세심한 관심과 지도를 해 주었다.

특히 어린이들이 많은 관계로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학생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다체험과 차체험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시했다.



방명록 서명



인설의 노력으로
차문화 뿌리 내리다

전날 새벽 약간의 비가 내려서 그런지 하늘은 높고 날씨는 맑았다. 개회식에서 최소연 규방다례 보유자는 “인설 명예이사장님께서 청소년들에게 차문화를 알리기 위해, 우리나라 최북단 비무장지대에서부터 땅끝마을에 이르기까지, 차도구를 싣고 전국을 누비셨습니다. 그 열정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인설차문화전 차예절경연대회가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효(孝), 예(禮), 지(智), 인(仁)의 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마음이 맑고 향기로운 ‘참된 차인’으로 성장해 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라며 인사말을 했다.

영상으로 보내주신 가천길재단 회장이며 가천대학교 총장이자 의학박사인 이길여 한국차문화협회 명예이사장은 “고 이귀례 이사장님의 아호 ‘인설’을 떠올립니다. ‘차를 다루는 어진 사람’, 곧 차를 뜻하는 그 이름에는 우리 차문화를 위해 일생을 바치겠다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세계가 청년의 손끝에서 다시 한국의 차문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통은 지키되, 표현은 새롭게, 정신은 곧데, 그러나 형식은 시대와 호흡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손끝에서 우리의 차가 더 힙(hip)하고, 핫(hot)하게, 그러나 더욱 단정하고 깊이



김천주 여성소지자연맹 회장



유정복 인천시장



이길여 가천대 총장
(한국차문화협회 명예이사장)



도성훈 인천광역시 교육감



최지원 인천지부장 경과보고

있게 피어나길 바랍니다.”라고 영상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었다.

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은 “차향 그윽한 스물여섯 번째 ‘전국 인설차문화전 차예절경연대회’개최를 300만 인천 시민과 함께 축하합니다. 우리의 전통 차문화는 마시는 행위와 예절에 그치지 않고, 마음속 존중과 배려를 담아 상대방에게 소중한 정신적 가치를 내어주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 김천주 회장은 “오늘 아침에 인설차경연대회가 있으니 날씨가 도와주십사





2025. 11. 01.
인천광역시 도성훈 교육감, 김천주 회장, 최미리 부석부총장, 이태훈 가천길병원장 등 내외 귀빈들



2025. 11. 01.
김천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회장과 함께



2025. 11. 01.
인설차문화전을 참관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과 차를 나누다



2025. 11. 01.
일반부에 참가한 참가자들과 함께 하고 있는 김천주 회장과 함께

기도하고 왔습니다. 오늘 행사장에 오니 이렇게 좋은 날씨가 되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인설 이귀례 명예이사장님께서 오늘의 모습을 보시고 참으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훌륭하고 멋진 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인설의 노력과 오늘 차예절경연대회를 주관하고 계신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차인 여러분들이 진정한 애국자이자 우리 문화의 외교관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문화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최소연 이사장님을 비롯하여 차인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은 “다도는 단순히 차를 마시는 행위가 아니라 예와 덕을 익히고, 마음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수양의 문화입니다. 특히 오늘의 경연은 청소년들에게 효, 예, 지, 인의 덕목을 길러주는 인성 교육의 장이자, 생활 속에서 바른 예절 문화를 확산시키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인설의 노력으로
차문화 뿌리 내리다



찾자리를 둘러보고 있는 내외 귀빈



발물레 시연을 살펴보고 있는 최미리 수석부총장과 회원들

경연장 주변으로 제다체험을 비롯하여 전통 발 물레를 통한 도자기 제작 체험, 녹차 솜사탕, 인절미 떡메치기 체험, 연 만들기 체험, 가루차 체험, 나만의 사진 만들기 체험 등이 인천도호부관에 곳곳에 설치되어 청소년들에게 긴장감을 풀어주는 역할을 했다.

제다체험은 오전 11시부터 시작되었고, 전통 발 물레 체험에서는 도자기를 직접 만들어 주는 이벤트가 실시되어 많은 호응을 얻었다. 특히 k-pop 댄스 공연은 청소년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최소연 이사장은 경연이 펼쳐지고 있는 곳을 찾아서 “심사위원들에게 밝고 환하게 미소를 짓고, 참가자들이 긴장하지 않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배려를 해 주세요. 특히 순번이 늦은 참가자들이 추위에 떨지 않도록 보온과 쉴 자리를 마련해 주도록” 조치해 주었다.

오후 1시 30분부터 시작된 경연대회는 오후 4시에 마치고, 무형유산 전수관인 풍류관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

차문화를 이끌어 갈 차세대 영광의 차인들

예선을 거쳐 본선에 올라온 150여 명,
치열한 경쟁 속에서 월등한 기량으로 수상

지난 11월 1일 오후 1시 30분부터 인천도호부관아 실외에서 전국 인설차문화전 차예절경연대회가 유치부를 비롯하여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순으로 펼쳐졌다. 이번 대회는 9월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아 10월 21일 규방다례보존회에서 1차 심사를 했다. 예선을 거친 참가자 150여 명은 오프라인으로 인천도호부관아에 경연대회를 펼쳤다.

유치부와 초등부 심사위원으로는 이명숙, 심순옥, 박삼숙, 이정희, 노영숙 협회 이사가 맡았다. 중고등부에는 정경희 김경자 협회 이사와 서난경, 황미경, 김미숙 지부장이 맡았다. 대학부는 김태임, 박경숙, 박숙희 지부장과 이막동 이사, 권혁화 규방다례 이수자가 맡았다. 일반부는 강정자, 김가영 부회장과 이림, 강순란, 연규남 지부장이 맡았다.

총괄 심사평을 해준 김가영 부회장은 “이번 인설차문화전 심사 기준은 크게 4가지로 봤습니다. 첫째 옷차림, 둘째 기본예절, 셋째 절하기, 넷째 차내기를 보았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스러움이었습니다. 차예절은 생활 속에서 차를 내는 것이므로 ‘자연스러움’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수상의 결과를 떠나 참가한 청소년 여러분들이 모두 훌륭한 차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회에 참가한 청소년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김가영 부회장 심사평



경연대회 참가한 학생들



심사위원 유치·초등부



심사위원 중·고등부



심사위원 대학부



심사위원 일반부



“150여 명이 참가한
이번 인설차문화전 차예절경연대회
대상은 가천대학교
박한빈 학생이 받았다.
수상자들은 물론 참가한 모두
훌륭한 차인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최우수상 - 인천시장상



최우수상 - 인천시의장상



최우수상 - 인천시교육감상



최우수상 - 가천대학교 총장상



최우수상 - 가천길재단회장상



최우수상 - 규방다례이사장상



우수상 - 한국차문화협회상



우수상 - 인천무형유산이사장상



우수상 - 가천대길병원장상



우수상 - 가천박물관상



장려상 - 가천문화상 (유치부)



특별상



차꽃상



장려상 - 가천문화상(초등부)



장려상 - 가천문화상 (고등부)



차꽃상



행운상



장려상 - 가천문화상 (대학부)



장려상 - 가천문화상 (일반부)



행운상

“미래의 차인들의 모습이 멋지다.
또한 어린이들을 지도하신
선생님께 드리는 특별상과 차꽃상이
더욱 빛나는 인설차문화전이였다.”

차의 변방 '몽골'에서 펼쳐진 '선비·생활다레' 시연

‘앉은 자리를 바꾸지 않으면 새로운 풍경을 볼 수 없다.’라는 말이 있다.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시도를 할 때 비로소 새로운 것을 마주할 수 있는 것이다. 2025년 임원 연수 장소를 몽골로 결정한 것은 ‘새로운 풍경’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그 기대감을 안고 협회 임원진은 지난 2025년 9월 7일부터 10일까지 3박 4일 동안 몽골 울란바토르로 향했다.



우리 협회는 매년 해외 연수를 통해 국제 차문화 교류전을 펼쳐왔다. 그동안 대만, 베트남 등을 방문하여 방문국의 차문화와 우리의 차문화를 비교 분석하면서 우리의 차문화를 발전시켜왔다. 2025년도에는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시도로 '몽골'을 선택했다. 몽골은 차문화의 변방이자 '힐링'의 장소로 많은 사람에게 회자하고 있는 국가다. 우리의 차문화를 보급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타진하면서, 그동안 협회를 위해 고생한 임원님들께 조금이나마 위로와 힐링의 시간을 주고자 최소연 이사장님의 결단으로 '몽골'을 가게 되었다.

몽골인들의 전통차라고 할 수태차 체험도 했다. 수태차는 몽골인들이 피로를 풀고 병을 치료하는 용도로 이용된 차다. 수태차는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몽골의 밀크티라고 부른다. 특히 귀한 손님이 왔을 때 대접하는 차로 현지에서는 무척 인기가 높다.



이번 2025년 임원 '몽골' 워크숍은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할 기회였다. 특히 몽골에서 최초로 우리의 전통문화인 선비다례와 생활다례를 시연할 기회를 가진 것이다. 이런 꿈을 안고 협회 임원들은 인천국제공항으로 모였다.

2025년 9월 7일 최소연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 31명은 대한항공 KE197편에 탑승했다.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한 대한항공 KE197편은 울란바토르 국제공항에 10시 50분에 도착했다. 우리나라와 몽골의 시차는 1시간 차이로 몽골이 우리나라보다 1시간 늦다. 공항을 벗어나 울란바토르에 도착 후 간단하게 점심을 먹었다. 식사를 마친 후 울란바토르 국회의사당 앞 광장에서 열린 'Korea Week 행사'가 진행되어, 임원들은 교민들을 위로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참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후레대학교(Huree University)에서 생활다례, 선비다례 등 시연

울란바토르 국회의사당 앞 광장에서 펼쳐진 'Korea Week 행사'는 생각보다 많은 몽골인이 참석하여 인산인해를 이뤘다. 우리의 녹차부터 화장품, 떡볶이 등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부스가 마련되어 있었고, 부스마다 한국을 체험하기 위한 몽골인들이 줄을 섰다. 우리의 문화가 이곳 몽골까지 접수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우리나라 외교부와 교민들이 진행하는 'Korea Week 행사'를 관람한 후 임원들은 후레대학교로 이동했다. 후레대학교는 '붉은 영웅', '울타리'란 뜻으로 2002년 한국인이 세운 IT특성화 대학이자 한국어를 가르치는 대학이다. 이번 후레대학교 방문은 정순훈(후레대학교 총장)의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정순훈 후레대학교 총장은 지난 2025년 한복



후레대학교 교수님은 선비다례 시연에 함께해서 영광이라고 말했다.



후레대학교 교수님들이 손님으로 참석해 더욱 의미가 컸다.



생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한복 문화와 한복 산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형성하고자 한복세계화재단을 이끌고 있기도 하다. 서울에서 1차 만남을 통해 최소연 이사장과 정순훈 총장은 친분을 쌓았고, 이번 몽골 만남을 통해 후레대학교와 한국차문화협회가 활발한 교류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순훈 후레대학교 총장은 “존경하는 한국차문화협회 최소연 이사장님과 차인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국만리에서 고향 사람을 보니 더욱 반갑습니다. 한국차문화협회의 명성은 여러 곳에서 들었습니다. 한국 최고의 차문화 교육기관으로 차문화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차문화협회 임원님들의 방문을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제가 듣기로 한국차문화협회가 국내 26개 지부와 일본 교토지부를 포함하면 27개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부로 몽골 후레대학교에 한국차문화협회 지부를 개설하여 초대 지부장으로 취임하려고 합니다. 한국차문화협회 제28개 지부가 되는 셈입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라며 한국차문화협회에 큰 관심을 보였다. 정순훈 총장은 재치 있는 말과 유머로 긴 시간 여행을 한 임원들에게 큰 웃음과 함께 활기를 주었다.

최소연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협회는 매년 해외 연수를 통해 각국의 차 생산지와 차산업 현장을 둘러보며 견문을 넓혀왔습니다. 이번 임원 연수는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고 재충전의 시간을 갖기 위해 힐링을 목적으로 몽골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곳에서 다례 시연의 기회를 얻게 되어, 더욱 의미 있고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협회는 대한민국 차문화의 산실로 국내외 27개 지부를 두고 있는 교육기관입니다. 특히 인천시

무형유산 규방다례로 지정되어 우리 고유의 행다법을 계승 발전시키고 있는, 차문화 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단체입니다. 이번 임원 연수 기간 우리 고유의 차문화 행다법인 생활다례와 선비다례를 후레대학교 관계자분들께 선보이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김가영 부회장의 (사)한국차문화협회 약력 소개와 후레대학교 교무처장님의 후레대학교 소개가 있었다. 협회 소개와 대학교 소개를 하는 동안 뒤에서는 오늘 시연을 준비하는 회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협회 최점순, 최진숙 이사의 생활다례 시연, 김미숙 강원지부장, 문차남 이사의 선비다례는 후레대학교 관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후레대학교 관계자들은 “우리의 차문화가 이렇게 아름다운지 새삼 알았다.”라며 “대한민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이 느껴졌다.”라고 했다. 생활다례와 선비다례 시연을 하기 전, 박광옥 부회장의 설명으로 규방다례에서 한복에 관해서 설명했다. 색깔은 그 역할과 의미하는 것이 있다며, 우리의 한복 색깔은 오방색으로 우리 고유의 색으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후레대학교에서의 시연을 마무리하고, 후레대학교 관계자와 협회 임원들은 친교의 시간을 가지며, 첫날의 일정을 소화했다.



몽골 전통가옥
‘게르’에서 숙박,
테를지 국립공원 관광



첫날 숙소는 초원 위에 지어진 럭셔리 게르에서 보냈다. 게르는 냉난방과 온수, 샤워실, 화장실이 갖춰져 불편함이 없었다. 아침 일찍 인천에서 출발한 임원들은 첫날 몽골 하늘에 떠 있는 별과 함께 단꿈을 꾸며 잠들었다.

2일 차는 테를지 국립공원 관광을 했다.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인 ‘테를지 국립공원’과 몽골의 샤머니즘을 보여주는 돌무지 ‘어위’, 테를지 국립공원 명물인 ‘거북바위’, 와 ‘기암괴석’을 보고, 실제 게르에서 생활하는 현지인의 집을 방문하여 수태차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의 차문화와 수태차의 문화가 형식은 다르지만, 비슷하다는 것이 협회 임원들의 중론이었다. 외부에서 귀한 손님이 오면 정성껏 집에 있는 것을 대접하는 것은 우리 문화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국립공원 곳곳에는 몽골인의 전통가옥인 ‘게르’가 있었고, 그 주변으로는 한가롭게 풀을 뜯는 말과 양들을 흔치 않게 볼 수 있었다. 게르 중에는 일



부 여행객들의 숙소로 활용되었으며, 드넓은 초원으로는 트래킹할 수 있는 작은 둔덕도 있어 관광객들이 많이 찾았다.

점심은 테를지 국립공원에서 현지식으로 먹고, 오후에는 칭기즈칸 동상이 있는 울란바토르로 이동했다. 칭기즈칸 동상은 우리나라 LG그룹의 후원을 받아 숲이 조성되어 있었다. 칭기즈칸 동상 내부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좌측에 가축 신발이 있었다. 이 신발은 소 130여 마리의 가죽과 내부에는 시멘트 7g 정도를 사용하였다고 한다. 실제로 만져보면 매끈한 가죽이 실제 우리가 생활에서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다. 그 옆으로 역대 칭기즈칸 초상화 36명이 걸려 있다. 1대 칸은 1208년부터 1227년으로 19년의 재위 기간 몽골제국의 토대를





만들었고, 마지막 칸은 1604년부터 1634년까지 이어졌으나, 최초의 몽골제국보다 영토가 많이 축소되었다.

“유럽까지 정복한 칭기즈칸은
몽골에서 신적인 추앙을 받고 있다.”





홍망과
성쇠의 역사를
한눈에 보다

간등사



3일째 칭기즈칸 박물관과 국영백화점, 몽골의 전통 공연 '투멍이흐 관람'을 했다. 칭기즈칸 박물관은 시내 중심에 있어 관람하기 편리한 점이 장점이 있었다. 박물관에 들어가자마자 거대한 칭기즈칸 초상화가 걸려 있고, 층마다 시대별 특징과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아쉬웠던 점은 박물관 내부에서 촬영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어 사진을 촬영하지 못한 점이다. 하지만 몇 곳에는 예외가 있어 박물관 안에서 단체 기념사진 촬영을 했다. 박물관을 둘러보면서 역사는 홍망과 성쇠의 과정이 아닌가 생각되었다. 몽골제국은 1208년부터 1634년까지 600년 동안 세계를 제패하고, 그 후에는 조금씩 영토를 잃고 현재는 내몽골과 외몽골로 나뉘 빈약



한 국가로 전락했다. 몽골 전통 공연은 단순히 노래나 춤의 나열이 아닌, 몽골 민족의 철학과 세계관이 녹아든 무대였다. 그 기원은 수천 년 전 샤먼 의식에서 시작됐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후 각 부족 별로 발전하며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다. 특히 공연의 핵심은 '호미'라는 독특한 창법이다. 일종의 후두 성악으로, 하나의 목소리에서 두 가지 음을 동시에 내는 방식인데, 이는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창법 중 하나로, UNESCO 인류무형문화유산에도 등재되었다고 한다. 호미는 단순히 소리를 내는 기술이 아닌, 자연과 교감하려는 정신적 수련의 결과라고 한다.

악기 모린후르는 말머리 모양을 형상화한 전통 현악기로 몽골 음악의 상징이다. 두 개의 줄로 자연



의 소리, 말의 발굽 소리까지 표현해내며, 연주자와 관객이 감정적으로 하나 되는 경험을 제공한다. 민속무용은 빠른 발놀림과 유려한 손짓이 조화를 이루는 몽골의 민속춤은, 부족마다 특색이 다르다. 카자흐 계열의 부족은 팔을 넓게 펼치는 춤을, 동부 지역은 빠르게 몸을 회전시키는 춤을 춘다. 남성 무용은 강인함과 민첩함을, 여성 무용은 섬세한 손놀림과 우아함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다. '몽골 전통 공연'은 단순한 구경거리를 넘어, 하나의 생생한 문화체험이자 정신적 여정을 선사할 뿐만 아니라 힐링의 시간을 제공해 주었다. 4일째 몽골 최대 규모의 사원인 '간등사원'을 갔다. 우리나라에선 '간단사'로 알려진 '간등사원'은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 자리한 티베트 불교사원으로 1930년에 있었던 공산정권의 종교적 억압에서 살



아남은 유일한 사원이다. 라마불교의 대표적 사원인 '간등사원'에는 150여 명의 수행자가 머물고 있다. 공식 명칭은 '간등테그친른히드'이며, 몽골 불교의 진수를 확인할 수 있는 도량이다. 몽골 불교의 중심 간등사원은 '완전한 기쁨을 가진 위대한 곳'이란 뜻이 있다. 1809년에 짓기 시작해 1913년에 완공된 간등사원이 몽골인들에게 기쁨을 주는 이유는 이곳에서 기도하면 내세에도 다시 인간의 몸으로 환생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곳을 마지막으로 협회 임원 차문화 워크숍을 마쳤다. 3박 4일 동안 몽골에서 보낸 시간을 뒤로 하고 다시 한국차문화협회 임원으로서, 또 차인으로서 우리의 역할과 활동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어 무척 뜻깊은 차문화 기행이었다. ☯

2025.09.10.

2025년 보수교육 1박 2일간 진행

협회 임원 및 규방다례 이수자 등
50여 명 참여

협회는 지난 11월 14일부터 15일까지 1박 2일 동안 인천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에서 2025년도 보수교육을 시행했다. 최소연 이사장을 비롯하여 부회장, 지부장, 이사, 전수장학생 등 50여 명과 봉사자 등 준비 요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원 보수교육을 진행했다.



2025. 11.14.



2025.11.14.



2025.11.14.



2025.11.14.



2025.11.14.

보수교육 수료식

보수교육에는 협회 임원뿐만 아니라 대학원생들의 수업도 함께 진행했다. 이수자들이 직접 학생을 지도하는 시간으로 많은 대학원생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보수교육은 오후 1시부터 인성예절교육 프로그램으로 1교실 배례와 규방다례, 2교실 생활다례와 선비다례, 가루차행다례가 진행되었다. 1교실에서는 최소연 보유자의 세심한 지도와 헌신적인 노력으로 참가한 이수자들에게 일일이 지도를 해 주었다. 오후 1시부터 진행된 인성예절교육은 오후 4시까지 이어졌고, 수업을 끝내고 인천 연수구에 있는 시래마을에서 저녁을 함께하며 다담 시간을 가졌다. 다담 시간에는 협회 2026년도 계획표와 일정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 내년도 계획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일정으로 짜였으며, 다양한 의견에 대해 교환하는 시간이 되었다.

12월에는 송년회와 내년 1월 신년교례회, 동계연수회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내년도 동계연수회와 해외 임원 연수 건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이에 따라 11월 17일 최소연 이사장을 비롯하여 차영민, 박광옥 부회장 등은 천안에 있는 재능교육연수원을 둘러봤다. 연수원은 깔끔했고, 식당과 강당, 숙소는 잘 정돈되어 있어 연수하는 데 적당하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내년도 해외 연수로 일본을 계획하고 있는데, 일본 연수에 대한 비용 문제에서부터 차발 탐방 등에 대해 여러 곳에서 건적서를 받아보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민달래 팀장은 여행사를 몇 군데 섭외하여 함께 진행하기도 했다. 다담 시간 동안 협회 임원들은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하나가 되는 시간을 가졌다.

15일에는 오전 10시부터 2일 차 보수교육이 시행되었다. 전수교육관 2층 풍류관에선 최소연 보유자의 진행으로 배례와 규방다례가 진행되었고, 전수교육관 1층에 연습실에서는 박광옥 전승교육사의 진행으로 생활다례와 가루차행다례가 진행되었다. 무형유산 규방다례 이수자들은 최소연 보유자와 박광옥 전승교육사를 도와 대학원생들에게 배례, 생활다례, 가루차행다례, 규방다례를 집중적으로 1:1 교육이 진행했다. 최소연 보유자는 “새벽부터 지방에서 올라온 분들을 위해 하나라도 더 가르치고 배우고 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교육을 통해 지도사범이나 회원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침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라며 수업을 독려했다. 보수교육 다음에는 수료식 대표 선서와 함께 1박 2일간의 협회 임원 보수교육 및 대학원 수업을 모두 마쳤다. ☯



2025.11.14.



2025.11.14.

노인성 난청, 보청기로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노인성 난청 환자는 타인과의 대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질환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이뤄져야 한다. 이 질환으로 귀가 아주 먹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적극적인 재활로 일상과 사회생활에 큰 지장이 없음을 주지시켜야 한다.



가천대 길병원 이비인후과
선우웅상 교수

노인성 난청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귀의 노화 현상으로 인해 서서히 청력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말한다. 귀의 노화로 퇴행성 변화가 이뤄진 신경 조직은 재생이 힘들어 청력을 예전 상태로 회복하기는 쉽지 않다.

난청은 그 자체로도 불편함을 초래하지만, 고령자의 소통과 사회생활 위축을 가속한다. 또 정상인보다 치매에 걸릴 위험이 2~5배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최근 세계적 저널인 랜싯(Lancet)에 게재된 해외 전문가 그룹의 대규모 메타분석 연구결과 보고를 보면, 난청이 있는 경우에 치매 발생 위험성이 37% 가까이 증가했다.

난청이 뇌의 인지 기능 저하를 유발하는 이유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청력 손실과 연관된 노화와 미세혈관 병변 등의 기전으로 치매 발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된다. 난청으로 인한

뇌의 자극이 줄어들면 감각 박탈에 따라 뇌의 감각 처리 영역의 활동 감소로 이어져 인지 기능 저하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난청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생기고, 사회적인 고립이 유발돼 사회적 상호작용이 저하되면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난청을 유발하는 가장 나쁜 습관은 과도한 소음 노출이다. 통상 80dB 이상의 큰 소리는 청력에 문제를 일으킨다. 일상적인 대화의 크기는 50dB 정도인데, 소리가 10dB 증가할 때마다 10배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즉 80dB 소리는 일상적인 대화 소리보다 1,000배 큰 소리라 할 수 있다.

대다수 난청 환자는 자신의 난청 여부를 잘 인지하지 못한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현상이라고 치부한다. 특히 난청이 한쪽 귀에만 생

겼을 때는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없어 간과하기 쉽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로 난청 유병률이 높아지는 데 비해 환자들의 보청기 사용률은 매우 낮은 편이다. 2010~2012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보청기가 필요한 40dB 이상 중등도 난청 유병률은 60대 12%, 70대에 26%, 80대 이상에서 53%였다. 하지만, 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보면, 보청기가 필요한 인구 중 약 12.6%만이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었다.

보청기 사용을 꺼리는 이유는 다양하다. 과거의 보청기는 모든 영역의 소리를 확대해서 들려주기 때문에 큰소리를 너무 크게 듣게 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다. 현재는 기술의 발달로 주변 소리를 위화감 없이 최대한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다. 최근 개발된 보청기는 성능은 물론 외형도 많이 개선됐다. 귀 뒤로 살짝 걸거나 외부에서 아예 보이지 않는 제품도 있다. 과거처럼 외부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나 보이는 외형의 보청기는 이제 사용되지 않는다. 난청이 있다면 안경을 끼듯이 보청기를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경제적 이유 역시 보청기 사용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이다. 현재 보청기의 정부지원은 청각장애(양측 60dB 이상, 또는 한쪽 40dB & 반대쪽 80dB 이상)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 보다 많은 난청 환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될 여지가 있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보청기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유형에 따라 고막형, 귀속형, 외이도형, 오픈형, 귀걸이형 보청기가 있고, 소리를 분석해 조절

하는 채널 수에 따라 기능이 구분된다. 기존의 교체형 배터리 대신 충전식 배터리를 탑재한 보청기와 무선 충전 기술이 적용된 제품도 개발됐다. 이들 제품 중 환자 개인의 건강 및 청력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제품을 선택할 때 말소리가 뚜렷이 들리지 않거나 이물감에 착용을 꺼릴 수 있다. 실제 보청기 사용자 중 말소리가 잘 들리지 않거나 이물감 등의 원인으로 사용을 중단하는 사례는 흔하다. 이 같은 경향은 전문의의 진단과 처방 없이 보청기를 구매해 사용하는 경우 심해진다.

보청기를 이용한 치료를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을 통해 난청의 유형, 정도를 판별해야 한다. 단, 난청이 심할 때는 인공와우나 이식 수술 등을 통한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심하지 않은 노인성 난청 환자는 적극적인 청력 재활도 중요하다. 청력 재활 중에는 심리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노인성 난청 환자는 타인과의 대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질환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이뤄져야 한다. 이 질환으로 귀가 아주 먹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적극적인 재활로 일상과 사회생활에 큰 지장이 없음을 주지시켜야 한다.

난청의 원인은 매우 다양한 만큼 자신의 귀 건강 상태를 자세히 검사해야 한다. 전문의의 진단 하에 이뤄진 보청기 착용은 난청 극복은 물론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 고령화 시대에 건강한 삶을 위해 난청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



글_문학 박사
강원지부장 김미숙

고려 팔관회를 통해 본 의례문화(2)

고려 팔관회와 차(茶) 명상: 일상 속 깊은 성찰로의 초대

고려 팔관회의 축제 분위기

『고려사』에 의하면 팔관회는 고려시대 9가지 속절(俗節:명절날)의 하나였다. 고려시대 속절에는 정월(元正:설날), 상원(上元:정월대보름), 한식·상사(寒食·上巳:음력 3월 3일), 단오(端午:음력 5월 5일), 중구(重九:음력 9월 9일, 동지·팔관(冬至·八關:음력 11월 15일), 추석(秋夕:음력 8월 15일) 등 아홉 가지가 있다.¹⁾ 이러한 속절에 사당이나 조상의 묘에 차례를 지낸 후 사람들이 어울려 즐기는 축제이기도 하였다. 고려시대 팔관회의 분위기를 발랄하게 묘사한 시가 있는데 다음과 같다.

정기는 펄럭이고 북소리는 둥둥 旌旗邐邐鼓逢逢
호종하는 선관들은 만종의 녹을 누린다. 扈從仙官祿萬鐘
예악은 한창인데 임금은 희열에 젖어있고 禮樂未終天有喜
어느 새 송악의 소나무엔 백설만 쌓였다. 須臾雪滿鵲峯松

이 시는 척약재 김구용(1338~1384)이 공민왕 18년(1369)의 ‘팔관대회’를 보고 그 소감을 읊은 것이다.²⁾ 펄럭이는 깃발과 요란한 북소리에 어울린 갖가지 악무와 잡희들로 어우러진 팔관회의 장을 재기발랄하게 묘사하고 있다. 왕을 호종하는 관리를 ‘선관(仙官)’에 비유하였고 온갖 의식이 벌어지는 구정[격구를 하는 대궐의 크고 넓은 마당]에서 만면에 미소를 머금은 공민왕

1) 『高麗史』卷84 志38 刑法1 名例 禁刑, “俗節【元正 上元 寒食 上巳 端午 重九 冬至 八關秋夕】”
2) 金九容, 楊若齋集 卷上, “己酉年八關大會.”

(1330~1374)의 용안을 선연하게 묘사한 후 갑자기 내린 서설이 송악산 소나무에 수북이 쌓였다고 마무리 하였다. ‘예악은 한창인데 임금은 희열에 젖어있고’라는 대목에서 팔관회 대회일에 음악이 연주되고 행사가 축제 형식으로 흥겹게 진행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렇듯 팔관회는 엄숙한 의례가 주를 이루는 행사였지만, 그 이면에는 흥겨운 축제의 기운이 가득했다. 팔관회는 소회일(小會日)과 대회일(大會日)로 나뉘어 진행되는 기간 동안 궁궐 밖에서는 백성들의 흥을 돋우는 다채로운 연회가 펼쳐졌다. 음악이 연주되고, 가무가 어우러지는 백희(百戲)는 신분과 계층을 초월하여 모두가 즐기는 축제의 장이었다. 차(茶) 의례의 고요함과 축제의 흥겨움이 함께했던 팔관회는, 차 한잔이 지닌 정신적 가치와 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화합의 기쁨을 동시에 보여주었으며, 조화와 평화를 노래했다. 8월 늦여름, 햇살에는 서서히 가을의 빛깔이 스며든다, 천 년의 시간을 넘어 우리에게 전해지는 차의 정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소통과 화합의 가치를 일깨워주고있다. (1회 끝)

늦가을의 정적은 인간의 심성을 조용히 가라앉히는 계절적 힘을 지닌다. 자연이 수렴(收斂)하는 시기, 차 한 잔의 맑은 향은 계절의 침잠과 호응하며 마음의 질서를 회복시키는 매개가 된다. 이러한 ‘고요의 체험’은 단순한 음미를 넘어 하나의 제의적 체험으로 확장될 수 있으며, 고려시대 팔관회(八關會)가 지녔던 의례적 고요와 직접적으로 맞닿는다. 팔관회는 불교·도교·토속신앙이 융합된 국가적 의례로 알려졌지만, 그 내면에는 심성 수양적·명상적 구조가 자리하며, 특히 차(茶)는 제의의 집중과 정결성을 구현하는 핵심 매체로 작용하였다. 본고는 필자의 논문을³⁾ 비롯한 문헌을 기반으로 팔관회의 의례 구조와 그 속에 내재한 차문화·명상성을 고찰하고, 이를 현대 차명상과의 문화사적 계보 속에서 재해석해 본다.

팔관회의 의례 구조와 성격

팔관회는 본래 불교 팔제일 신앙에서 기원하나 고려에 들어와 국가적 제의로 재편되었다.⁴⁾ 『고려사』에 나타난 기록에 따르면 팔관회는 단순한 종교 행사가 아니라, 왕실의 안녕과 국가의 질서 재확립을 목적으로 한 정치·종교 복합 의례였다.⁵⁾ 팔관회가 불교 중심 의례로 보이거나 실제로는 도교적 제천 요소와 토속신 숭배 및

3) 김미숙, 「고려 팔관회의 의례문화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4) 이기백, 『한국사신론』, 일조각, 1993, pp. 212-213.
5) 『고려사』 권5·권78, 팔관회 관련 기록 참조.



조상제례가 혼입된 “다층적 의례 체계”를 지녔다고 분석한다.⁶⁾ 이러한 다층성은 의례의 감각적·정신적 층위에서도 복합적 의미를 생성했고, 차(茶)는 이 복합성의 중심에서 청정성과 고요의 상징으로 기능했다. 팔관회의 의례 절차의 구성을 보면 문헌 분석에 따르면 팔관회는 대체로 ① 정화(淨壇), ② 천신(薦神), ③ 공양(供養), ④ 향·연등 의례, ⑤ 연희와 참여라는 흐름으로 구성된다.⁷⁾

정화 단계에서는 물·향·차 등이 사용되며 의례 공간을 신성화하고, 참여자의 심리를 ‘집중의 상태’로 이끌었다. 공양 단계에서는 불보살과 선현에게 차를 올리는 헌다(獻茶)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는 단순한 봉헌이 아니라 의례 수행자가 자신의 마음을 정결히 하여 신 앞에 나아가는 행위였다. 향과 등불은 감각적 신성성을 극대화하며 의례의 전개에 ‘집단적 집중’의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런 구조적 특징은 팔관회가 일종의 집단적 명상 의례였음을 시사한다.

팔관회와 차문화의 연계

제의 매체로서의 차는 팔관회의 의례 속에서 차는 사물적 공물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고려사』와 사찰 문집에 보이는 “헌다(獻茶)”, “향다(香茶)” 등의 표현은 차가 신령에게 바치는 정결성의 상징이자 참여자의 정신을 맑히는 수행의 도구였음을 보여준다. 불교의 청정 사상과 도교의 청정무위(淸淨無爲) 개념, 토속 제천의 정화 사상이 모두 차라는 매체를 통해 통합되며, 차는 팔관회의 다원적 종교 구조 속에서 문화적 통합의 매개로 기능하였다. 또한 차향은 의례 공간에서 두 층 위의 의미를 생성했다. 첫째, 신령을 맞이하는 신성성의 표현으로서 향기(香氣)는 필수 요소였다. 둘째, 참여자의 감각을 열어 의례적 집중 상태로 이끄는 내면성의 매개였다. 팔관회의 의례 공간이 “감각적·심성적 층위가 결합된 복합 구조”라고 분석하는데,⁸⁾ 차향은 바로 이러한 복합 구조를 강화하는 감각적 정신적 역할의 키워드였다.

차는 의례 전체의 시간성을 조절하는 장치이기도 했다. 물을 끓이는 시간, 찻잎을 더우고 우려내는 시간, 향이 피어올랐다 사라지는 흐름, 잔을 들고 천천히 마시는 동

작 이 모든 행위는 의례의 ‘리듬’을 형성하며 이를 통해 참여자는 의례적 호흡을 얻었다. 이는 곧 팔관회 속에서 차가 수행적 매체였음을 입증한 것이다.

팔관회의 명상성

의례의 명상 구조와 팔관회의 절차는 ‘정화 → 집중 → 합일’의 삼단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이는 현대 명상의 단계와 동일한 패턴이다. 정화 단계에서 마음을 비우고 집중 상태로 들어가며, 헌다·공양 단계에서는 감각적 매개를 통해 정념(正念)의 상태를 유지하고, 최종적으로 연희 단계에서는 공동체적 합일감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팔관회는 단순 종교 행사라기보다 국가 단위의 명상적 수행 체계였다고 볼 수 있다. 차의 명상적 기능은 차는 참석자의 감각을 안정시키고 마음을 한 지점에 모으는 ‘정념적 도구’였다. 뜨거운 기운, 탕색(湯色), 향기, 그리고 천천히 마시는 행위는 모두 참여자의 심리를 가라앉히고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게 하였다. 이는 현대 차명상의 핵심 구성 요소와 직접적으로 맞닿는다.

현대 차명상과 팔관회의 문화사적 계보

차명상은 팔관회의 내면성의 계승 물이다. 현대 차명상은 차의 향·색·온기를 통해 감각을 열어 마음을 고요히 하는 수행 방식이다. 이는 팔관회의 향다(香茶), 정화 의식, 의례적 호흡, 집중적 공양과 직접적인 구조적 유사성을 가진다. 즉 차명상은 사회적 의례였던 팔관회의 내면성·정화성을 개인 수행으로 전환한 현대적 계승이라 할 수 있다. 의례의 공동체성에서 개인화로 전환은 팔관회가 국가·사회적 명상 의례라면, 오늘날 차명상은 개인의 일상 속에서 구현되는 수행이다. 그러나 이 차이는 형식의 차이일 뿐, ‘고요를 통한 질서 회복’이라는 본질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고려 팔관회는 국가적 제의였지만, 그 내면에는 차를 통한 정화와 집중, 명상의 구조가 내재해 있다. 차는 의례의 다층적 종교 요소를 하나로 통합하는 매개였으며, 참여자의 감각을 열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수행의 도구다. 현대의 차명상은 팔관회 속의 이러한 내면적 요소가 개인화된 형태로 재탄생한 것이며, 차를 통한 고요는 시대를 넘어 지속되는 심성 문화의 흐름이다. 늦가을의 고요 속에서 피어오르는 한 잔의 차향은 팔관회가 지녔던 제의적 고요와 명상적 깊이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되살리게 한다. ☯

지부장 칼럼은 2회에 걸쳐 실었습니다. 1회 원고 끝은 고려 팔관회의 축제 분위기이고, 2회 원고는 팔관회의 의례 구조와 성격부터입니다.

6) 김미숙, 앞의 논문, pp. 47-49.
7) 『고려사』 「예지(禮志)」 「악지(樂志)」 참조.
8) 김미숙, 앞의 논문, pp. 120-124.



한문교육학 박사
우리 협회 총복지부장
박숙희

겨울날, 차를 즐기다

겨울이다. 차가운 바람 속 쓸쓸함이 한없이 몰려와 더 세차게 추위가 가슴까지 시리게 한다. 영하를 넘나드는 추위로 자꾸만 웅크려진다. 눈이라도 내리면 흰 눈을 밟으며 잠시나마 푸근함이라도 느낄 텐데.

친구야, 네가 사는 곳에도 눈이 내리니?

산 위에 바다 위에 장독대 위에
하얗게 내려 쌓이는 눈만큼이나
너를 향한 그리움이 눈사람 되어
눈 오는 날

눈처럼 부드러운 네 목소리가
조용히 내리는 것만 같아
눈처럼 깨끗한 네 마음이
하얀 눈송이로 날리는 것만 같아

나는 자꾸만 네 이름을 불러 본다

시리도록 차갑고 차가운 눈 속에서도 따뜻함을 느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가, 애끓는 그리움 속에서도 자신을 다스리며 어우를 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인가. 이해인 님의 시 <겨울 편지>에 담긴 그리움이 문득 다가오는 오늘이다.

혼자 마시는 차는 나를 바라보게 한다. 맑디맑은 찻물은 나를 비춰보며 스스로를 보듬게도 하고 때로는 차를 보내온 빗을 생각하게도 한다. 마주 앉지 않아도 그의 맑은 눈과 미소, 따뜻한 위로의 음성이 들려온다.

고려말의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잠시 한 잔의 차로 나를 돌아보며 자신을 가다듬는 시간, 차 선물에 감사하며 기쁨의 교감을 표현한 시를 감상해 보자. 고려말의 학자 도은 이충인(李崇仁, 1349~1392)의 <남악 총선사방 임 선생 운을 따라 짓다(題南嶽聰禪師房 次林先生韻)>라는 시에는 수행하는 옛 벗의 삶을 보며 나를 다스리는 차의 의미가 잘 드러나 있다. ‘남악’은 지리산의 다른 이름이다.

相逢久面目	오랜만에 옛벗 얼굴 마주하니
妙契透機關	오묘한 인연으로 속마음도 통하네
三業水俱淨	삼생의 업은 이미 물처럼 씻겨지고
一生雲與閑	일생의 삶은 구름처럼 한가하네
泉甘宜煮茗	샘물은 달아 차 달이기 좋고
日永好看山	다사로운 햇살 속 산풍경도 그윽하네
慙愧靈師語	부끄럽구나 영 스님께 환속을 권했던 일
休官便此還	벼슬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고 싶네

도은은 고려 후기의 문학을 대변하는 문인으로 목은 이색, 포은 정몽주와 함께 고려말 3인으로 일컬어진다. 그는 문재로서 고려의 국악을 위해 기여했으나 1392년 정몽주가 살해된 뒤 그의 일당으로 몰려 유배, 조선이 개국 되자 정도전이 보낸 황거정에게 피살되었다.

‘삼업(三業)’은 불교 용어로 신업(身業·몸으로 지은 업, 탐욕), 구업(口業·입으로 지은 업, 성냄), 의업(意業·마음으로 지은 업, 어리석음)을 뜻한다. ‘영사어(靈師語)’는 당나라 때 유학자 한유(韓愈)의 「송영사(送靈師)」의 ‘지금 그대를 우리의 도(道)로 끌어들여, 삭발한 머리에 유학자의 관을 씌워주고 싶다(方將斂之道且欲冠其顛)’라는 구절로, 승려를 환속시켜 유학자로 만들고 싶다는 말이다.

서로 다른 길을 걷는 벗이 오랜만에 만났다. 차 한 잔 기울이며 이심전심(以心傳心)으로 서로의 마음을 읽는다. 이미 도인이 된 옛벗을 보며 자신의 삶을 반추해 본다. 이제 속세를 떠나기엔 늦은 것일까. 다사로운 햇살 속 먼 산을 바라보며 구름처럼 한가하게 살고 싶은 소박한 바람을 한 잔의 차 속에 담아 본다. 벼슬 그만두고 산속으로 돌아오고 싶다(休官便此還)는 뜻을 말하고 있지만, 속세의 인연은 겨울바람처럼 냉혹하기만 하다.

생물 미상인 고려말 충숙왕(忠肅王) 때의 문신 홍약(洪淪)의 <송파 최성지 정승이 차와 종이를 선사함에 감사하며 두 수를 짓다(謝松坡崔相國誠之惠茶紙二首)>를 보자.

惠賜重重意轉深	내려주신 귀한 뜻 더욱 깊으니
酪奴側理勝羸金	낙노와 측리가 금 한 상자보다 낫구나
龍團鳳餅堪同調	용단과 봉병은 운치가 같고
毛穎烏圭豈異心	붓과 먹도 어찌 판마음 품을까
陽羨遺風清可掬	양선의 유풍은 맑아 움켜질 만하나
蘭亭故事杳難尋	난정의 고사는 아득한 옛일이네
玉川已遠右軍死	옥천은 이미 멀고 왕우군도 죽었으니
何處如今覓賞音	지금 어느 곳에서 이 풍류를 찾을까

정승 최성지가 차와 종이를 선물했다. 홍약은 시 두 수를 지어 사례했다. 두 수 가운데 이 시는 첫째 수이다. 차와 종이 가 금보다 낫고 그 뜻이 고결하고 한결같은 고사(故事)로 표현하여 선물의 정의(情誼)를 높이 치하했다.

낙노(酪奴)는 차, 측리(側理)는 결 무늬가 비스듬하게 새겨진 종이를 가리킨다. 먼저 차와 종이 선물의 가치를 논하여 정승의 높은 안목을 칭송했다. 영금(羸金)은 국화 무늬로 만든 황금 덩이이다. 송나라 황실의 차인 용단과 봉병, 모영(毛穎, 붓)과 오규(烏圭, 먹)도 뜻밖의 선물로 받았나 보다.

양선(陽羨)은 중국 호주 장흥현 지역의 지명으로 그곳에서 생산되는 차를 ‘양선차’라 한다. 차의 유풍은 남아 그대로이나, 동진(東晉)의 명필 왕희지(王羲之, 321~379)가 벼들과 난정(蘭亭)에서 모여 놀며 시를 짓던 고사(故事) 속 주인공들은 이미 고인이 되었다. 왕희지는 우군장군(右軍將軍) 벼슬을 지냈기 때문에 ‘왕우군’이라고도 부른다. 옥천(玉川)은 당나라 노동(盧仝, 775~835)이다. 그는 차 품평을 잘하였고, ‘다가(茶歌)’는 한유의 칭송을 받기도 하였다.

홍약은 최정승이 이미 고인이 된 노동이나 왕희지 못지않은 풍류를 아는 현시대의 뛰어난 인물이라고 극찬했다. 특히 그는 차와 종이를 받은 감사의 마음을 차의 청아한 덕성과 한결같은 속에 담았다. 최정승에 대한 후의는 물론 자신의 변함없는 존경의 마음을 한껏 표현한 시이다.

눈 내리는 창밖을 보며 차 한 잔 나눌 벗을 기다려 본다. 따뜻한 미소, 음성, 차를 건네는 손길이 그림다. ☁

茶茶茶

회원 글밭

회원들의 다채로운 차 이야기 속에는 즐거움, 기쁨, 아쉬움, 연민, 사랑, 외로움 등이 묻어 있다. 그 속에는 보석 같은 우리의 일상이 숨어 있다. 이번호에는 각 지부의 회원들이 다양한 주제로 차와 관련된 내용을 보내주었습니다. 옥고를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회원 글밭은 차인 여러분들이 만드는 코너입니다. 항상 문이 열려 있으니 옥고를 보내주세요.

<편집자 주>

선비차로 신선 되어 보기

인설차문화전 차예절경연대회 최우수상 수상

글_경남지부 김도현

차문화 2025 겨울



저는 어릴 때, 우연한 기회에 한국차문화협회 경남지부 함안지회에서 차를 배우게 되어 지금까지 차공부를 하는 대학생입니다. 처음 시작한 초등학교 5학년 시절에는 다기가 무겁고 물은 뜨거워 힘들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차를 마시는 것이 좋아 차츰차츰 차에 대한 애정이 생겨났습니다. 조금씩 차 우리는 순서도 알게 되고 다례와 차문화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무겁게만 느껴지던 다기도 손에 익어 가벼워지고 차와 차문화에 매력을 느끼며 틈날 때마다 다례를 익혔습니다.

차문화 관련 행사를 참여하거나 대회에 참가하면서 많은 차공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해마다 열리는 <인설차문화전 차예절경연대회>에도 몇 번 참여 하였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학생들이 멋지고 이쁜 모습으로 다례를 하는 모습에 주눅이 들기도 하고 유치원 아이들의 모습은 너무 귀여웠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을 볼 때면 저의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아 반갑기도 하였습니다.

올해도 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다른 대학교에서 참가한 친구들의 의젓한 모습을 보며 걱정을 하였는데, 운 좋게 큰상을 받

게 되어 기분이 좋았습니다. 늦게까지 심의해주신 이사님들께 감사드리고 매번 좋은 행사 열어 주시는 협회 이사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차생활을 하면서 대회에 나가서 입상도 하니 저 스스로 뿌듯함을 느끼고 가족과 친구들이 응원해주시니 더 말할 나위 없이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전통문화를 소중히 여기고 이어가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선비다례에 열중한 순간에는 제가 신선이 된 듯한 착각이 듭니다. 따뜻한 차 한 모금에 몸이 맑아지고 머리가 맑아집니다. 앞으로도 차생활을 하면서 저의 전공인 국악을 더 배우고 익히며 대학 생활도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



차가 열어준 새로운 길

글_신명여자고등학교 2학년 김다연



저는 1학년 때 학교생활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친구도 없고 따돌림을 겪으면서 무단결석이 잦았고 마음의 어려움도 커져 치료와 상담을 함께 받는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대학에 대한 꿈도 없고, 제 자신을 믿지 못하던 때였습니다. 그런 저에게 전환점이 된 것은 작년 인설차 경연대회였습니다. 차를 준비하며 보내는 고요한 시간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특별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처음으로 “나도 할 수 있을까?”라는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마숙경 선생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따뜻한 칭찬과 격려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작은 동작에도 “잘 잘한다, 넌 할 수 있다”라고 응원해 주셨고, 그 말들은 제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올해 저는 다시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차를 마시며 마음을 다스리고 운동을 병행하여 15kg 이상의 체중을 감량했으며, 2주 동안 예절실에서 꾸준히 연습했습니다. 연습 기간에는 후배들 앞에서 시범을 보이며 제가 받은 응원과 용기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기에 후배들 앞에서는 더 정성스럽게 더 책임감 있게 서고자 했습니다. 그 노력의 결실로 이번 인설차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 상은 단순한 성과가 아니라,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 용기이자 스스로를 이겨낸 값진 결과입니다.

차는 제게 마음을 치유해 준 첫 번째 친구였고, 앞으로 저는 차를 통해 더 단단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를 믿고 따뜻하게 이끌어 주신 마숙경 선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사진 오른쪽에서 둘째가 신명여고 김다연 학생

몽골여행

글_협회 부회장 강정자



황야의 대지를 다져온
유목의 삶
겹겹이 둘러싸인 언덕배기 땅
초원 가득히 짙을 띄우고
가축은 기름진 풀을 뜯는다

천년와불 팔베개하고 잠들어 있는 그곳
양떼도 흰 구름도 경계 없이 오고 가네

억겁의 세월에 밟혀
무너져내린 돌부리 사이로
피어난 에텔바이스 꽃향기는
추억으로 한 컷 남겼다

붉은 노을 잠든 밤
두 팔 뻗어 하늘을 짚고
돈음 밭 가볍게 헤엄치듯 떠오른다

잡힐 듯이 쏟아지는 별 무리 쫓아
밤을 헤어 지새운다. 🌌



함안 서산서원 찾자리 가져

글_경남지부 전문사범 김돌자



문화재 소품사업 체험 부스 찾자리를 서산서원에서 가졌습니다. 성균관 유교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참여한 이번 찾자리는 은행잎이 노랗게 물드는 햇살 좋은 가을 오후였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땡기 머리를 한 청소년들과 서원을 견학하고 체험하러 오신 많은 분과 함께하였습니다.

서원은 조선 시대 성리학을 가르치던 교육기관으로 성현을 기리는 사묘(祠廟) 역할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은 1543년 풍기군수 주세붕이 세운 백운동 서원을 시작으로 교육, 제사, 향촌 교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였지만, 정치적 분당의 온상이 되기도 하여 1868년 서원 철폐령으로

대부분 사라졌으나 현재 한국의 서원은 2019년 7월 이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함안 서산서원은 숙종 29년(1703년)에 경상도 유학자 곽억령 등의 청원으로 1706년(숙종 32) 단종 폐위에 반대하여 절의를 지킨 생육신인 조려(趙旅), 원호(元昊), 김시습(金時習), 이맹전(李孟專), 성담수(成聃壽), 남효온(南孝溫)의 학덕과 충절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하여 위패를 모신 곳으로, 1713년에 '西山(서산)'이라는 현판을 받아 사액(賜額)되었으며, 선현 배향과 지방 교육의 일익을



담당하여 오던 중 서원 철폐령으로 훼철되었다가 1984년에 복원되었습니다. 이날 저는 여름내 서산서원 정원에 피어있던 아라홍련 연꽃을 닮은 백련 차를 우려 청소년들과 방문객들에게 대접하였으며, 방문객들은 차잔을 두 손에 들고 가야금 합주와 현대무용을 감상하며 강당인 양정단과 서재인 상의재 마루에 앉아 고즈넉한 가을을 가슴에 담아내었습니다. 특히 한복을 곱게 차려입는 청소년들이 송의재에서 공연한 가야금 합주는 예약에 노니는 옛 선조들을 떠올리게 하는 멋진 프로그램으로 차와 예약이 하나 되는 풍류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가을이 가을다운 것은 자연이나 사람이나 울긋불긋한 마음으로, 따뜻한 한 모금의 차로 가슴을 적시며 낙엽 젖듯이 젖어 드는 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차 공부를 하면서도 따뜻한 한 모금의 차로 만인을 즐겁게 한다면 그 또한 행복이 아닐까 생

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순간 나 자신이 차 한잔을 우려낼 수 없었던 사람이었다면 차를 나누는 방문객들의 행복한 마음을 어찌 보았겠습니까. 차를 공부한 시간이 모두 고맙고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

“가을이 가을다운 것은
자연이나 사람이나
울긋불긋한 마음으로,
따뜻한 한 모금의 차로 가슴을 적시며
낙엽 젖듯이 젖어 드는
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차 한 잔과 다구처럼, 관계 속 ‘나의 자리’에 대하여

글_대구경북1지부 지도사범 이진우



모든 인간관계는 마치 차를 마시기 위해 다구(茶具)들이 모여 하나의 예를 이루는 것과 같습니다. 서로 다른 개성과 역할을 가진 도구들이 어우러져야 비로소 차 한 잔의 완성을 끌어내듯 우리 관계도 그래야 제 기능을 발휘하지요. 하지만 그 과정이 늘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지난 몇 년간, 저 역시 몇 가지 곤란한 상황을 겪으며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몸소 느꼈습니다. 한 번은 직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였 습니다. 저는 제 역할에 최선을 다하려 애썼지만 한 동료와의 소통 문제로 큰 갈등이 생겼죠. 그분은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다른 이들의 기여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회의 시간마다 제 의견은 무시되었고 결국 제가 담당했던 부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프로젝트 전체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때 느낀 소외감과 분노는 마치 다구들이 제자리를 잃고 흩어져 불편함을 초래하는 모습과 닮아 있었습니다. 서로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으면 각자의 존재와 기여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때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또 다른 날은 오랜 친구와의 만남에서 작은 오해가 쌓여 서로 감정을 상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평소 친밀했던 사이였지만 사소한 말 한마디가 오해로 이어지면서 둘 사이의 분위기는 급격히 얼어붙었죠. 결국 서로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연락이 자연스레 끊기고 말았습니다. 이때 느낀 외로움과 아쉬움은 마치 각자의 다구가 제자리를 잃어버린 채 소란만 일으키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의 역할과 의미를 잃었기 때문임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처럼 인간관계는 때때로 역할의 불균형이나 소통의 부재로 큰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들은 결국 우리가 서로의 고유한 가치와 역할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 자리를 다시 찾기 위한 계기가 되어줍니다. 우리가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려는 노력이 쌓일 때, 비로소 진정한 소통과 깊은 인연이 만들어지는 것이겠지요.

우리의 삶은 다기의 올바른 배치처럼 각자의 ‘구실’을 찾아야 온전한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다관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까지 알고 나면 인연이 된다
아, 이것은 비밀.”

은 물의 흐름을 부드럽게 하고, 숙우는 찻물 온도를 조절하며, 퇴수기, 찻잔, 차통 등 각 도구는 제 자리에 있어야 본연의 기능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기가 어긋난 자리에서 임무를 수행한다면, 찻물이 흘러내리거나 찻잎 부스러기가 쏟아지듯 우리 관계도 어수선히지고 불편함이 생깁니다.

지상에서만 천체를 관측하던 시절, 우주 밖을 온전히 들여다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구름과 대기의 방해가 있었기 때문이죠. 인류는 결국 허블 우주망원경을 띄워 우주의 신비를 밝히려 했고, 초기 반사경 문제에도 불구하고 끈질긴 수리와 정비 덕분에 허블은 설계 수명을 넘어 30년 넘게 우주의 진실을 포착해 냈습니다. 우주왕복선 스페이스 셔틀이 수많은 에너지를 쏟아 대기권을 넘어 나아갔듯, 우리도 자신에게 맡은 소임에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자신이 맡은 구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 자리를 굳건히 지켜나가야 합니다. 흔들리는 마음에 묵직한 추를 달아 제자리를 찾는 것, 그것



이 바로 삶의 올바른 태도이자 자존의 회복이 아닐까요.
나태주 시인의 시처럼,

< 풀꽃2 >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까지 알고 나면 인연이 된다
아, 이것은 비밀.

우리가 서로의 ‘모양까지’ 알고 존중할 때, 비로소 우리의 관계는 깊고 아름다운 인연이 될 것입니다. ☯



많은 분의 도움으로 가천문화상을 수상하다

글_서울제1지부 교육생 유기선



어릴 적 친척이나 동네 어른을 찾아뵈었을 때, 예의를 갖추어 절하며, 내주시는 다과를 맛있게 먹었던 “전통적인 다례(茶禮)”의 기억이 납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 바른 자세를 취하기조차 쉽지 않지만, 지부장님과 사범님들께서는 저의 부족하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칭찬과 격려를 듬뿍 담아 친절히 이끌어 주십니다. 차를 대하는 절차와 자세는 어렵지만, 덕분에 배례법과 행다법을 차근차근 제대로 익히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다례와 선비다례를 직접 시연하시는 최진숙 선생님의 모습에는 정성과 진심이 가득합니다. 차분하고 간결한 자세,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움직임에서 느껴지는 정갈한 품격과 기품은 매 순간 깊은 감동을 선사하며, 제 안에 잠재된 호기와 열정을 일깨웁니다.

차란 무엇인가? 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시작으로, 차의 역사, 성분과 효능, 차인 열전, 육대 다류에 관하여 공부합니다. 특히 육대 다류를 강의하시고, 각종 차를 직접 우려내어 따라 주신 이석예 이사님의 흔들림 없는 자세와 다양한 차의 맛을 우려내시는 깊은 내공에 감탄했습니다. 저 역시 그 내공을 배우고 싶습니다.

아쉽게도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설차문화전에 직접 참가할 수 없었지만, 선비다례 시연 동영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동영상 촬영하는 과정에서 계속되는 저의 실수와 부족한 데도 인내심을 가지고 여러 차례 직접 촬영하며 자세를 바로잡아 주신 신연서 이사님, 최진숙 이사님에게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인설차문화전에 제출했던 동영상이 가천문화상을 수상하였다는 지부장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무척 놀랐지만, 이 수상은 제게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정진하라는 격려의 뜻으로 알고, 흔들림 없이 차 공부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차의 흐름 속에서 찾는 일상의 여백

글_서울제1지부 4학기 교육생 김승빈



어느덧 4학기 교육생이 되었습니다. 지난 4학기 동안 규방다례와 생활다례를 배우며 가장 크게 느끼는 변화는 제 마음이 움직이는 속도입니다. 예절을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절을 올릴 때마다 몸보다 먼저 마음이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그 고요한 순간이 상대를 향한 존중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절은 정해진 예법 중 하나이지만, 그 안에는 차를 올리는 사람의 마음과 태도가 고스란히 비칩니다.

차를 준비하며 물의 흐름을 바라보며 때로는 여백을 배우게 됩니다. 물이 달아오르고 식어가는 온도, 다관에 스며드는 잔열, 수증기가 사라지며 남기는 여백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제 호흡도 그 속도와 자연스럽게 맞춰집니다. 늘 빠르게 움직이며 바쁘게 지내는 일상 속에서, 물이 만들어내는 흐름의 유연한 리듬은 저를 잠시 멈추게 하고 마음의 소란스러움을 차분하게 정리해 줍니다. 그래서 생활다례는 기술의 습득을 넘어 마음을 단정히 다듬는 과정처럼 느껴집니다.

윗사람께 차를 올리는 동안, 찻잔을 들어 올리는 작은 동작 안에는 단순한 ‘대접’ 이상의 의미가 담

겨 있으며, 상대를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마음이 손끝의 여백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날 때 차는 비로소 온전한 흐름을 갖추게 됩니다. 생활다례는 정확한 동작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담긴 마음의 결이 고르게 다듬어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사실을 매 순간 새로이 배우고 있습니다. 급하고 바쁜 마음의 속도를 내려놓고 비우고 시작해야 합니다. 일상의 감정들을 부드럽게 가라앉힐 수 있는 풍아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내가 나로서 충만하게 존재한다는 인식을 하게 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어줍니다.

제26회 전국 인설차문화전 및 차예절경연대회에 참여하며, 이번 경연의 시간은 그동안 쌓아온 배움을 차분히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절과 물의 흐름 속에서 배운 느린 시간의 가치, 그리고 바쁜 일상에서도 잃지 않아야 할 마음의 방향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다례가 전해주는 고요함과 여백의 미를 지키며, 차를 통해 자신을 단정히 다듬어가는 길을 꾸준히 이어가고자 합니다. 생활다례의 사려 깊은 세계가 오래도록 제 일상 속에 머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

제28회 전국 청소년 차문화전 및 차예절 경연대회 참가기

글_서울제1지부 이사 신연서



지난 대회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11월 8일 전주에서 열린 제28회 전국 청소년 차예절경연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금요일 매장 문을 닫고 전주로 향했습니다.

지우는 문경에 거주하며, 그동안 동영상과 영상통화로만 수업을 이어온 초등2학년생입니다. 화면 너머로 손끝의 각도와 다관의 위치, 차의 온기와 마음의 흐름을 맞추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아이가 잘못된 행동이 습관이 될까 염려되어, 매장 문을 닫고 문경까지 내려가 온종일 지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수업 중 혼이 날 때도 있었지만 아이는 “그래도 다도는 할래요.”라며 한결같은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다. 몇 시간을 가르쳐도 흐트러지지 않는 그 자세 속에서 저는 다도의 본뜻, ‘마음을 닦는 길’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부모님도 그런 아이 모습에 놀라셨습니다. 늘 산만하다고 생각했는데, 다도를 할 때만큼은 한결 집중하고 침착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쌓인 시간들이 이번 대회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아이는 지난 대회와 같은 7번 번호표를 받고 긴장 없이 차분하게 차를 올렸습니다. 손끝은 담담했고, 인사의 눈빛에는 깊은 예가 배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초등부 최우수상 - 최지우. 그 순간, 그동안의 모든 노력과 인내가 떠올라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다시 느낍니다. 차를 배우는 일은 단순히 기술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닦고 인성을 기르는 공부라는 것ですよ. 지우가 앞으로도 차와 함께 마음을 다스리며 예(禮)의 향기를 품은 사람으로 자라나길 바랍니다.

지우야, 정말 장하고 고맙다. 너의 차 향기처럼 따뜻한 길을 늘 응원할게. ☺

아이들과 엄마와 함께하는 뜻깊은 소망

글_서울제2지부 전문사범 윤채영



언젠가 독립하여 홀로 살아가야 할 아이들의 인생에 차 한 잔이 주는 여유로움, 차 한 잔이 주는 힘을 가져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례를 시작하였습니다. 일 년에 한 번씩 차예절경연대회를 염두에 두고, 일주일에 한 번 다기를 펼치고 정리하며, 서로를 마주 보고 행다를 반복하며, 아이들과의 눈맞춤이 미소가 되고, 웃음이 되어가며 어느새 유치원생이 대학생이 되고 어른이 되어갑니다.

전국의 지부에서 함께하는 인성차문화예절 경연대회. 유치부부터 대학부, 일반부까지. 스승의 마음이 차 한잔에 담겨 열매를 맺는 뜻깊은 경연의 자리가 됩니다. 한국차문화협회 고 이귀례 명예이사장님의 뜻을 이어가시는 최소연 이사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어르신 뜻이 담겨있는 인성차문화전 차예절경연대회는 우리가 갖추어야 할 덕목이 고스란히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눈앞의 사익을 따져 살아간다면, 행할 수 없는 많은 일들. 오십 년 백 년을 내다보는 혜안으로 이어가는 세대를 아우르는 인성차문화전 경연대회는 스승과 제자의 모습으로 우리네 차문화예절 정신을 담아냅니다. 더욱이 요즘은 명상하는 이들이

예전보다 많아졌고, 명상의 필요를 느끼고, 삶의 여유로움을 얻고자 하는 흐름이 보입니다. 명상에 차를 더한다면 굳어지고 차가웠던 몸이 부드럽게 답하지만, 정신이 맑아지고 얻고자 하는 목표에 더욱 가깝게 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계절에 전국의 학생들과 선생님, 그리고 부모님과 자녀들이 고운 한복을 입고 시간을 함께하며 올해의 전국 인성차문화전 차예절경연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하였습니다.

늘 변함없이 오래도록 깊고 넓은 혜안으로 한국차문화협회를 이끌어가시는 최소연 이사장님, 박광옥 부회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어르신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



인천시민대학에서 한국의 멋과 정성을 담아낸다



글_서울제2지부 전문사범 허유진

숨이 가쁘게 달려온 5회차 수업이 끝나고 시민대학 수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한국의 차문화는 단순한 음료 문화를 넘어, 마음을 다지고 사람 간의 정을 나누는 삶의 방식이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인천시민대학에서 진행된 다식 교육 프로그램은 이러한 정신을 고스란히 되새기는 실습 현장이었으며, 더욱이 5회에 걸쳐 진행된 과정은 준비와 정성, 그리고 여러 회원의 헌신이 모여 이루어진 값진 시간이기도 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부회장님을 중심으로 나를 포함해서 장효순 이사, 문차남 이수자, 류소영 이사들이 한마음으로 뭉쳐, 짧은 시간 안에 두 가지 이상의 다식을 완성하기 위해 매회기마다 사전 전처리와 정교한 시연 준비가 필요했다.

매주 두 번씩 진행되는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박광옥 부회장님의 지도하에 일사불란하게 다식을 만들며 쌓아가는 친밀감과 공감은 수고로움을 충분히 보상해 주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신뢰와 유대는 전 회원들과 나누고 싶은 감사의 마음으로 더욱 깊어졌다.

각 회기의 주제와 제작한 다식은 다음과 같다.

1회기_전통의 깊이를 담은 정과류

도라지 꽃정과와 인삼편정과를 만들며, 자연 재료가 가진 고유의 향미를 오롯이 살리는 조리법을 익혔다. 손끝의 섬세함이 요구되는 과정이었지만 전통과 품격을 느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2회기_고소함과 아름다움의 조화

흑임자 꽃다식은 곱게 볶은 흑임자의 고소한 맛과 청포가루로 조색해서 꽃 모양의 다식들을 활용한 섬세한 작업은 수강생들에게 큰 즐거움을 주었으며, 한국 과자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아까워서 어떻게 먹어 하는 수강생들과 부회장님은 검은깨는 탈모 건강과 혈액순환, 기력 회복에 예전부터 많이 쓰던 식자재다. 많이 먹어야 한다고 했다.

3회기_다양한 빛깔과 식감을 담은 양갱·정과류

팥, 단호박, 밤 양갱과 편강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전통 한과의 다양한 변주를 경험했다. 천연 재료

“이번 5회기의 과정은 단순한 실습수업을 넘어, 서로의 정성을 알아보고 마음을 나누는 한국 다식 문화의 본질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

에서 비롯되는 색과 단맛, 식감의 차이를 체계적으로 익히는 유익한 수업이었다.

4회기_색채와 조화가 돋보이는 현대적 다식

고구마·비트 샌드는 재료 본연의 색을 살린 현대적인 구성으로, 건강함과 창의성이 돋보였다. 전통 다식과 현대적 감각을 연결하는 시도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5회기_정성과 품격의 완성

마지막 회기에는 밤초, 밤다식(울란), 그리고 꽃감 단지를 만들며 수업을 마무리하였다. 깊은 품미와

고급스러운 외관을 갖춘 다식들은 수강생 모두의 노력이 모여 이루어진 결실처럼 여겨졌다.

이번 5회기의 과정은 단순한 실습수업을 넘어, 서로의 정성을 알아보고 마음을 나누는 한국 다식 문화의 본질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 함께한 모든 회원의 열정, 매 순간을 준비하며 이끌어준 부회장님과 회원들의 수고로움, 그리고 나눔의 마음은 앞으로도 한국 차문화와 다식문화의 발전을 향한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



K-Culture의 봄과 함께 멋진 도약을 그려본다

글_서울제1지부 교육생 조효선



멋진 계절에 다례가 무엇인지 궁금한 마음과 주변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고자 한국차문화협회 수업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신입인 저에게 인설차문화전 참가라는 좋은 기회가 생겨 생활다례와 선비다례를 속성으로 한 달 만에 익힐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례는 배려라는 모토에 걸맞게 차는 그냥 내리는 것이 아닌 상대방을 더 따뜻하고 더 맛있고 귀하게 여기라는 의미에서 이런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되면서 물 흐르는 듯한 자연스러움 속에 깊은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나의 삶은 내가 주인공이었다면 앞으로의 나의 삶은 나와 연이 닿는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살아야겠다는 작은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하나 세밀한 동작까지 봐주시는 스승님들을 보면서 무릇 나의 50~60대는 어떠할까 나도 이런 인재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면서 한국의 다례를 전 세계에 알리고 싶다는 작은 소망의 씨앗도 틔워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닌 스승님들의 노고를 헛되게 하고 싶지 않다는 열망으로 눈감고도 연습하는 시간을 보냈는데, 장관 동시통역도

떨지 않는 제가 막상 다례 시험장에서 차시를 들고 떠는 모습을 보면서 겸손함이 다례의 정수라는 것을 배웠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인 끈기와 인내의 중요성도 절실히 느꼈습니다. 최우수상의 영광은 남모르게 후학양성에 힘쓰시는 존경하는 제 스승님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두 달 정도 이루어진 초급 3급 과정 수업을 통해 차란 무엇인지 차의 역사와 전통도 배우고 배례법, 행다법, 차의 특성 등 머리와 가슴을 함께 채워주시는 알찬 수업들로 격주 토요일이 많이 기다려집니다.

앞으로 급수가 올라가면서 어떤 새로운 인생의 가치 있는 내용을 알게 될지 더욱더 기대됩니다. 한국차문화협회와의 멋진 동행 우리 함께 해보실래요? K-Culture의 봄과 함께 멋지게 도약하는 모습을 함께 그려보고 싶습니다. ☺



차는 배려이자 나눔의 종합예술

글_인천지부 제72기 허재현



처음 차를 접한 후 벌써 37년이 되었습니다. 1988년인 중학교 2학년 호국수련원에서 우연히 접한 차는 깊은 인상을 남겼고, 곧 해외로 이민을 가면서 잊었던 것이 우연한 기회에 다시 접하게 되었습니다.

봄에 있었던 차인큰잔치에 참석하고 9월에 입학해서 가을 차예절경연대회는 그간 잠잠했던 마음에 두근거림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더구나 이번 차예절경연대회에 참석하지 못해 간접적으로 봉사를 하면서 그들의 경연 모습에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25년 11월 1일, 유서 깊은 인천도호부관에서 개최된 '제26회 전국 인설차 문화전 및 차예절경연대회'는 늦가을의 고풍스러운 정취 속에서 한국 전통 다례의 깊은 가치와 아름다움을 오롯이 느낄 수 있었던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차예절경연대회였습니다. 참가자들은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차를 우리는 일련의 과정을 정갈하고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시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찻잔을 데우고, 차를 담고, 물을 붓고, 우려낸 차를 조심스럽게 건네는

모든 동작 하나하나에는 상대를 향한 깊은 배려의 마음이 녹아 있었습니다.

특히, 차실을 꾸미는 소품의 배치, 차를 올리는 법, 경연에 참여한 순간 가상의 손님을 대하는 듯한 행동에 이르기까지, 참가자들의 섬세한 노력은 다례가 곧 종합예술이자 살아있는 인성 교육임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경연의 결과보다는 그 과정에서 발산되는 진심 어린 정성이 관람객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는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의 일상 속에서 잊고 지냈던 '멈춤의 미학'과 '상대에 대한 공경'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는 기회였습니다. ☺



언젠가 차인이 되어라

글_인천지부 전문사범 원종혜



차예절 경연대회는 다음 세대에게 차문화를 전승하는 중요한 기회가 된다. 뒤돌아보면 미션스쿨을 다닌 것이 신앙에 접근하게 된 계기가 된 것처럼 배우고 성장하는 시기에 학교 교육에서 차문화를 접할 수 있다면 차를 단순한 기호 음료가 아닌 문화와 예절로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감사하게도 학생들이 차예절을 배우겠다고 나서주었고 경연대회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

장안대학교 항공관광과 학생들과 차예절 경연대회에 참가하기 시작한 지 삼 년째이다. 처음에는 준비도 부족하고 연습도 부족하여 그저 참가하는 데 의의를 두었다면 올해는 두 번의 경연대회

에 40여 명의 학생이 신청하여 9월 개강을 하자마자 연습을 시작했다. 1주일에 두 번씩 학생들의 모든 수업이 끝나고 난 뒤 모여 연습을 하다 보니 연습이 끝나고 나면 8시를 넘기기 일쑤였다. 불 꺼진 교정을 가로질러 삼삼오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질문을 쏟아내는 학생들을 보면서 정성을 다해야겠다는 마음만 들었다.

혼자서 충분한 연습을 시키기 어려워 마지막에는 인천지부의 최지원 지부장님과 조영아 이사님 등 여러 사범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연습을 도와주셨다. 학생들을 인천으로 불러 일상의 시간을 쪼개 가며 휴일에도 연습을 시켜 주시는 것을 보면서 값



기 어려운 감사함을 느꼈다. 학생들에게 서비스에 대해 가르치면서 경청과 배려를 강조하는데, 다레가 곧 배려가 아니었던가. 이론으로 배우는 배려가 아닌 경험으로 배우는 배려를 통해 진심으로 사람을 대할 줄 아는 서비스인으로 성장하길 바란다.

대회 당일 학생들은 한복을 입고 꽃처럼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스스로 땀을 흘리고 한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에 감탄하며 한복의 아름다움을 발견했다. 궁궐에서 국적 불명의 한복이 넘쳐나고 있는데 한복의 아름다움이란 무엇인지 직접 체험할 기회가 되었으니 이제 후일 어떤 외국인을 만나든 우리의 문화가 왜 아름다운지 조금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항공관광과 학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수님의 응원도 보태져 작년에 이어 올해도 소중한 수상의 기쁨을 안았고 대상 수상자도 나왔다.

차예절 경연대회를 계기로 학생들은 지역사회의 전통문화행사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서울에서 수원을 거쳐 화성까지 이어지는 '정조대왕 능행차'는 약 60km 구간에 이르는 왕의 행차를 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재현하는 행사이다. 1795년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인 용릉을 찾아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을 열었고 이를 을묘원행이라 부른다. 을묘원행은 의궤로 기록이 남겨져 있으며 이를 토대로 2016년부터 재현하는 행사를 열고 있는데,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행사이다. 학생들은 이 행사에서 매년 왕릉제례행렬, 상궁, 나인, 한복체험 부스 운영 등으로 봉사하고 있다.

차를 접한 지 오래되었지만 차인으로 걸어가는 길이 더디었다고 생각하고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랜 시간 동안 이끌어 주신 이사장님과 여러 사범님, 22기 동기 사범님들에게도 감사드린다.

우리 학생들도 차예절 경연대회를 계기로 전통예절을 배우고 한복의 아름다움을 알고 차맛을 보았으니 언젠가 아름다운 차인이 되어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본다. 이들을 통해서 차문화가 향유되고 차를 즐기고 창의적으로 다룰 줄 아는 차 인구가 많아져서 규방다례의 전통을 잇고 발전시킬 수 있기를. ☺

마운다미원 차문화 교실에서 피어난 아이들의 성장과 전통의 향기



글_전남지부 학생 김라예·김라이 학부모(김진, 김다인)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는 부모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잊지 못할 순간들이 있습니다. 첫걸음을 내딛던 날, 처음 학교에 가던 날처럼 특별하게 기억되는 순간 중 하나가 바로 ‘아이와 함께 차 한 잔을 나누던 시간’이었습니다. 아직은 어린아이 같지만 했던 우리 아이가 직접 차를 우리고 예를 갖추 내미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로서 느끼는 감동과 뿌듯함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2024년, 우연히 접한 마운다미원 차문화 교실은

처음에는 단순히 다도 예절을 배우는 수업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매주 수업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선배들과 어울려 서로 배려하며 예의를 익히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희 생각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사)한국차문화협회” 생소한 문화 단체였다. 처음 접하는 나로서는 무척이나 놀라웠다.

청소년 인성, 예절 교육과 다례법으로는 유일하게 규방다례가 무형 유산에 등재되어있고 올바른 차

문화를 보급, 연구하며 사람이 갖추어야 할 덕목과 기본 정신을 가르치며 차문화 기관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명을 받았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어린이들이 차의 떫고 쓴 맛을 싫어하지 않을까?’ 하는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곧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나는 홍차

가 제일 좋아”라고 말하며, “사주면 안 돼? 홍차 마시고 싶다~”고 집에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또 다른 아이는 “떫은 차가 제일 좋다”며 자신만의 취향을 분명히 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다양한 맛과 향을 스스로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로서 아이들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고정관념이 얼마나 쉽게 생길 수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호기심과 성장을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운다미원 차문화 교실은 단순한 차를 우려내는 기술을 넘어, 차의 기(氣)를 온전히 느끼고, 마음을 가다듬으며 타인을 존중하는 ‘정신’과 ‘품격’을 배우는 깊은 배움의 장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마운다미원에서의 캠프와 다양한 체험 활동 속에서 친구들과 협력하며 질서를 지키고, 작은 일에도 감사 인사를 전하는 습관을 차츰 익혀갔습니다.

특히 지난 5월 11일 열린 ‘부모님께 올리는 다례연’에서는 평소 장난기 많던 아이들이 한결같이 차를 우리고 부모님께 올리는 예절을 갖추는 모습을 보며, 차문화가 아이들의 행동과 마음속에 얼마나 깊게 스며들었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욱 인상적이었던 것은 가족과 함께 방문한 담양 대나무축제에서의 경험입니다. 축제 현장에 마련된 차 체험 부스를 아이들이 먼저 발견하였고, 차문화 교실에서 배운 예절과 마음가짐을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 실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부모 손을 꼭 잡고 다정하게 안내하며 능숙하게 차를 우리고 내미는 아이들의 모습은, 축제의 소란함 속에서도 차 한 잔에 담긴 따뜻함과 배려가 얼마나 큰 힘

을 가지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처럼 마운다미원에서 배운 차문화는 아이들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마운다미원 차문화 교실은 1기 선배들인 조수진(한재중 2학년), 조수정(한재초 6학년), 백두산(한재초 6학년) 학생들이 보여준 성숙하고 품격 있는 모습을 통해 그 가치를 증명해 왔습니다.

이들은 차문화를 통해 예절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타인과 조화를 이루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길 위를 2기 후배들인 송하경(진원초 3학년), 송하담(진원초 1학년), 김라예(한재초 3학년), 김라이(한재초 1학년) 학생들이 차문화의 정신을 계승하며 더욱 성숙하고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리라 기대합니다.

저희 부부 또한 이전에는 커피의 강렬한 향과 빠른 리듬에 익숙했지만, 이제는 차의 은은하고 깊은 향을 음미하려 노력합니다. 마운다미원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과정에서 차의 기(氣)와 정신이란 단순한 형식을 넘어 일상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마음가짐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배움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천천히 스며들어 아이들의 마음과 행동에 깊은 결실을 보고 있음을 느낍니다.

부모의 시선에 아직은 어린아이 같지만, 그 속에서 차츰 깊어가는 마음의 품격이 자리 잡고 있음을 느낍니다. 차문화 교실에서 맺은 작은 배움이 먼 훗날까지 아이들의 삶을 은은히 비추는 향기가 되어,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정행검덕 精行儉德



茶滌煩子 酒忘憂君

다위척번자 주위망우군

“예부터 茶는 煩惱를 씻는 친구라 했고, “술은 마음의 근심을 풀어주는 친구이다”라고 했다. 오늘날 우리는 茶를 통한 수양의 精行儉德이 무엇인지, 그 최고 경지를 잘 알지 못한다. 차를 마시는 茶人들과 현대인들에 있어서 도덕적 수양의 기본으로 그 덕목을 맨 처음으로 精行儉德을 꼽았다. 차는 단순히 마시는 일만이 능사가 아니다. 차를 즐기는 思想, 品格, 信念과 行動으로 茶 마시는 일 즉, 品茶를 精神으로 昇華시켰다. 陸羽(733-804)가 저술한 『茶經』에는 “茶는 精行儉德 즉, 마음과 행실이 바르고 겸손한 德을 지닌 사람이 마시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精行儉德의 정신은 오늘날도 차의 茶道精神과 茶道禮法으로 전해오고 있다. ☯

담원 김창배 | 문화예술학 박사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박사,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장 역임, 국내외 개인전 50여회, 대한민국미술상 수상, 차 한 잔의 인연, 동다송, 다신전 등 22권 출간.

차와 회화 차문화에 대하여 조선의 차 그림 연구 등 논문 4편, 현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동양학과 교수 재직.

담원 김창배 선생은 초의와 범해의 훈도를 받고 그들의 다매(茶畵)를 이은 “금명보정(錦溟寶鼎)”을 연구하여 지난 2월 23일에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에서 문화예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논문 : 錦溟寶鼎의 禪사상과 茶詩에 대한 研究』 <http://www.damwongallery.artko.kr>

협회소식

(사)한국차문화협회는 국내 유일의 무형유산 규방다례로 지정된 단체이다. (사)한국차문화협회는 국내 최대 최고의 차문화교육기관으로 지난 1991년 설립되어 한결같은 마음으로 한국 차문화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인설차문화전 차예절경연대회 온라인 심사

최소연 보유자와 박광옥 전승교육사 등 심사

우리 협회는 지난 10월 21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인천 무형유산전수관에서 2025년 인설차문화전 차예절경연대회 동영상 심사를 했다. 규방다례 보유자인 최소연 이사장을 비롯하여 박광옥 전승교육사와 최지원 인천지부장, 이기분 서울제1지부장, 이금숙, 강희옥, 조영아 이수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심사위원장인 최소연 규방다례 보유자는 “심사를 보면서 참가한 학생들의 열정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르치는 사람이 잘못 가르쳐서 학생들이 잘못 배운 점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가르치는 차인들이 먼저 정확하게 알고, 학생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점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어린 고사리손으로 찻잔과 다구를 살피며 행다를 하는 모습을 볼 때는 참으로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가한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친다면 훌륭한 차인으로 성장할 것임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라고 말했다.

박광옥 전승교육사는 “학생들은 선생님을 따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부장님들께서 세심한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출품된 동영상을 보면서 우리 협회 행다법에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들만 고친다면 훌륭한 차인들로 성장하는 데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3시간 동안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로 진행되었다. 특히 유치부 어린이들의 행사 모습은 심사위원들에게 미소를 떠나지 않게 만들었다. 작은 손으로 정성

껏 차를 우려내는 모습을 보고는 심사위원 모두에게 큰 감명을 주었다. 이번 동영상 심사는 경연대회 당일에 참석할 수 없는 학생들 위주로 진행하게 되었다. 조금 다른 점은 경연대회에 직접 참석한 참여자들보다는 약간의 감점을 받게 된다. ☹



추석을 맞이하여 협회 성묘

회원 30여 명 인설의 발자취를 회상하며 추모하다

협회는 지난 9월 29일(월) 오전 11시 추석을 맞이하여 분당메모리얼파크에서 고 이귀례 명예이사장님께 성묘를 했다. 화창한 가운데 최소연 이사장을 비롯하여 차영민, 김가영, 강정자, 박광옥 부회장과 지부 지부장과 회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촐하게 가졌다.

가나긴 여름이 지나고, 어느덧 나뭇잎이 물들기 시작한 산소 주변은 단풍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추석을 맞이하여 지부장님과 회원들은 하나둘 선물 꾸러미를 싸서 왔다.

가장 먼저 산소에 도착한 연규남 이사가 난 화분을 묘 앞에 놓았고, 정성껏 물수건으로 명예이사장님의 존영을 닦았다.

차례로 도착한 한국차문화협회 회원들은 명예이사장님의 묘역 주변을 손질했고, 가져온 음식들을 차례상에 진설했다. 함께 한 차인들은 차향처럼 서로의 정을 나누며, 고인을 추모했다.

협회 최소연 이사장님께서 찰밥, 콩설기, 울외장

아찌(나라즈케), 음료 등을 푸짐히 주셨다. 또한 최미리 가천대학교 부총장님께서 선물을 준비해 주셨다.

이 밖에도 강정자 부회장님 국화꽃 화분 2개, 최지원 인천지부장 김치, 인천지부 과일바구니, 류소영 이사 케이크, 문차남 이사·안난희 전문사범 송편, 최지은 전문사범 꽃감, 허유진 전문사범 호두과자, 연규남 난 화분, 서울제1지부 이기분 지부장 떡, 최성미 전수장학생 배, 신연서 이사 송편·꽃송편·메밀전, 최점순 이사 향로, 서울1지부 임원 일동 텐트, 김영희 이사님 썬덱 등을 준비했다. 이사장님께 선물 전달은 연규남 이사님, 인천지부, 조



최소연 이사장



부회장단



영아 이사(최지원 지부장 대신 전달) 등의 전달이 있었다.

박광옥 부회장의 진행으로 고 이귀례 명예이사장님과 합장된 조상님께 먼저 차를 올린 다음 최소연 이사장, 최미리 가천대 부총장 등 가족분들께

서 먼저 헌다를 했다. 이어서 부회장단, 지부장, 임원, 회원, 직원 순으로 헌다를 했다.

고 이귀례 명예이사장은 한국 차문화 발전에 헌신한 선구자로 한국차문화협회와 규방다례보존회의 정신적인 지주이다.



지부장



협회 이수자



이사



전문사범



마숙경 인천지부 회원인 선물 전달(오른쪽)



조영아 이사의 선물을 대신 전하고 있는 최지원 인천지부장

그분의 선구적인 차문화 운동은 우리의 문화가 국제적인 문화로 성장하는 데 주춧돌이 되었으며, 한국 차문화의 부흥을 이끌었다. 1991년 한국차문화협회 설립을 계기로 차문화의 세계화를 이끌었던 인설은 청소년들의 차문화 예절에도 깊은 관심을 가졌다.

그의 이런 노력은 한국 차문화가 세계적인 글로벌 문화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 정신은 오늘날 한국차문화협회의 전통으로 이어지고 있다.

맑은 가을 하늘에 하얀 구름이 평화로운 묘소에는 회원들이 용기종기 모여 점심을 함께했다. 새롭게

장만한 케노피 천막 안에서 따뜻한 가을 햇볕을 받으며 평생 차인으로 살다가신 명예이사장님을 추억했다.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명예이사장님께서 두 팔로 감싸 안아주시며 ‘고맙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 ☺

한복의 날 기념 및 한복상점 개막행사

협회 임원, 찾아가는 한복상점 홍보관 참석

지난 2025년 10월 20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3 로비에서 한복의 날 기념식이 최소연 이사장을 비롯하여 협회 임원 및 여야 국회의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찾아가는 한복상점은 한복을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문체부가 추진하고 있는 핵심 사업이다. 올해는 세종시, 코엑스에 이어 국회에서 세 번째로 열렸다.

협회 임원으로는 박광옥 부회장, 이기분 서울제1지부장, 김미숙 강원지부장과 함께 이막동, 이금숙, 강희옥, 류소영, 최진숙, 문차남, 신연서, 최점순, 변명선, 장효순, 이석에 이사와 최성미 전수장 학생 등이 참석했다.

국회의원으로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백혜련, 남인순 등 국회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최취영 장관 등이 참석했다.

최소연 이사장은 그동안 우리 한복의 우수성과 한복의 생활화에 앞장서 왔다. 특히 한국차문화협회 행사에서는 모든 회원이 한복을 입는다. 최소연 이사장은 이날 찾아가는 한복상점 홍보관을 둘러보면서 “한복업계와 소비자 간 접점을 마련해 한복 소비문화를 확산하고 판매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참여 브랜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한복상점은 2022년 코엑스, DDP 등 국내의 전문

컨벤션센터로 자리를 옮겼고, 2025년에는 역대 최대 매출, 최대 관람객 방문 수를 달성했다.

한복산업계 대표 행사로 자리 잡은 한복상점은 한복 판매뿐만 아니라 전시, 체험 등 한복의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행사로 성장했다.



한복문화산업진흥법을 발의한 임오경 국회의원에게 웃고름 매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협회 최소연 이사장



올해는 사계지락(四季芝樂)이라는 주제로 사계절 속에서 즐겨 입던 우리 고유의 옷을 통해 한복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조망했다.

우리 협회는 한복을 생활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름다운 차문화를 발굴 보존하고 있다. 특

히 우리의 규방다례에서는 한복으로 우리의 미의식을 고스란히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코스타리카 민속무용단 관람

한문화진흥협회 초청으로 최소연 이사장 등 임원 참석

협회 임원진은 지난 9월 24일 창신아트홀에서 열린 코스타리카 독립 204주년 기념 공연인 ‘코스타리카 민속무용단’을 관람했다. 최소연 이사장님을 비롯하여 차영민, 김가영, 강정자, 박광옥 부회장 등이 관람한 ‘코스타리카 민속무용단’은 다채로운 레퍼토리로 1시간 동안 공연했다.

이날 민속무용단 공연은 한문화진흥협회와 주한 코스타리카 대사관이 주최한 공연으로 코스타리카 독립 204주년을 기념하는 공식행사로 한문화진흥협회 회장인 정사무엘의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민간 한복 외교관’으로 정평이 나 있는 정사무엘 한문화진흥협회장은 최소연 이사장과 함께 한국문화의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다.

한문화진흥협회 정사무엘 회장은 “바쁘게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스타리카 독립기념일과 한국과 코스타리카 수교 63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에 와 주셔서 영광입니다.”라며 즐겁고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했다.

최소연 이사장도 “코스타리카의 독립 204주년과 양국 수교 6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좋은 공연에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라고 말했다. 1973년부터 코스타리카 전통문화를 지켜온 “Mi Linda Costa Rica”는 춤과 음악, 노래, 의상까지 그야말로 코스타리카의 매력을 압축해 보여주는 민속무용단이다.

8명의 무용수가 선보이는 무대는 활기차고 화려해서, 보는 순간 마음이 중남미로 순간이동 하는 기

분이었다. 국제 민속축제에서 코스타리카를 대표하며 세계 곳곳에서 사랑받아온 이들의 공연은 열정 그 자체였다. 라틴 특유의 강렬한 리듬과 에너지 넘치는 발걸음, 무대 위를 가득 채우는 다채로운 전통 의상 등이 볼거리였다. 6



대학원생들 음식 명장으로부터 차음식 수업

대학원생 20여 명 광주지부에서 수업받다

지난 9월 20일 차문화대학원 수업이 광주지부(지부장 박혜란)에서 열렸다. 그동안 건강상으로 협회 활동을 자제해왔던 박혜란 지부장은 “대학원 수업만은 꼭 해야겠다”는 의지가 확고해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박혜란 지부장은 큰 수술을 두 차례나 받아서 거동이 불편함에도 보조 보행기를 이용하여 열정적으로 음식 수업을 진행하여, 대학원생들로부터 큰 박수와 함께 감사의 인사를 받았다.

전국에서 모인 대학원생들은 준비해온 앞치마와 수건을 착용하고 조리실로 입실했다. 광주지부 사범 2명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된 단호박 떡케이크 수업은 긴장감 속에 진행되었다.

박혜란 지부장은 한국차문화협회 광주지부장이자 음식 명인으로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인기 강사이다. 1교시에는 단호박 떡케이크를 만들고, 2교시에는 혼례봉채떡을 만들었다. 대학원생 2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수업에서는 먼저 단호박 떡케이크를 만들었다. 미리 준비한 멥쌀가루와 단호박, 설탕, 잣, 대추, 호박씨, 소금 등을 박혜란 지

부장이 미리 준비해 두었다. 간단하게 만드는 법을 살펴보면, 우선 멥쌀은 깨끗이 씻어 5시간 이상 불린 후 건져 30분 정도 물기를 뺀 후 소금을 넣고 곱게 2번 뺑는다. 그리고 단호박은 이등분하여 씨를 제거한 다음 찜통에 찌서 껍질을 제거한다. 세 번째로는 쌀가루에 찢 단호박을 넣고 잘 섞어 비벼서 체에 2번 내린다. 네 번째로 잣은 고깔을 뗀 후 먼 보자기로 닦고, 호박씨도 잣과 같이 먼 보자기로 닦아 놓는다. 다섯 번째로 설탕을 잘 섞어 시루에 안친 후 칼금을 긋고, 고명을 올린 다음 김이 오른 솥 위에 올려 뚜껑을 닫고 20분 쪄 다





앞으로 훌륭한 차인들이 되어
우리 차문화 발전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음, 약한 불에 5분 뜸 들여 완성한 후 그릇에 담으면 끝이다. 오전에는 단호박 떡케이크를 만들고, 점심을 먹은 후에는 혼례봉채떡을 만들었다. 오전 수업과 마찬가지로 2교시에는 미리 준비해 둔 찹쌀가루, 소금, 설탕, 물, 밤, 대추, 붉은 팔고물, 붉은 팥, 소금, 물이 준비되어 있다. 아침 일찍 손수 준비한 재료를 가지고 2교시도 1교시와 마찬가지로

로 조를 만들면서 모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 정성껏 차음식을 만들었다. 모든 수업이 끝나고 난 후에는 직접 만든 단호박 떡케이크와 차로 다담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혜란 지부장은 “오늘 차문화대학원생들을 보니 무척 반가웠습니다. 거의 2년 동안 이곳에서 지내다 보니 조금 답답했는데 여러분들을 보고 힘이 났습니다. 앞으로 훌륭한 차인들이 되어 우리 차문화 발전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대학원생들은 “불편한 몸을 이끌고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신 지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빨리 완쾌하여 자주 뵙기를 바란다.”라며 완쾌를 빌며, 수업을 마쳤다. ☺



제28회 전국 청소년 차문화전 및 차예절경연대회 개최

유치부를 비롯하여 일반부 70여 명 생활다례로 경연

(사)한국차문화협회와 전통생활예절보존회가 주최하고, (사)한국차문화협회 전북지부와 설예원이 주관한 제28회 전국 청소년 차문화전 및 차예절경연대회가 지난 11월 8일 전주군지중학교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보성군, 하동군 등이 후원한 차예절경연대회는 전국에서 모인 유치부, 초·중·고등부와 대학부 청소년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대회를 주관한 한국차문화협회 이림(협회 부회장) 전북지부장은 “그동안 꾸준히 청소년 방과 후 교실 다동학교를 운영하여 미래의 주역인 우리 청소년들에게 전통문화를 바르게 인식하고 생활예절을 몸과 마음에 익혀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습니다. 그중에서 8 덕목인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을 능동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세부방법으로 차예절교육을 통해 공감능력, 의사소통 능력을 키워 정서 함양함으로써 학교폭력 등 문제 해결방안 제시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다동학교 ‘찾상머리 교육’의 효과라고 믿었습니다. 오늘 전국에서 참가해 주신 청소년들이 미래의 차인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오늘 갈고닦은 기량을 맘껏 뽐내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축사를 했다.

한국차문화협회 최소연 이사장은 충북지부 박숙희 부회장이 대독한 격려사에서 “이번 대회는 한복 입기, 절하기, 차우려 손님께 내기 등의 시연을 통해 차문화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대회로 최우수 대상자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여하게 됩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전주에서 개최하는 전국 청소년 차예절경연대회가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성공적인 대회로 자리 잡아 가고 있음에 큰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차문화협회는



협회 박경숙 대구경북제1지부장과 박숙희 충북지부장, 대학부 심사중



이림 전북지부장 인사말



최소연 이사장 인사말 대독
박숙희 협회 부회장



전라북도 전주에서 열린 2025년도 전국 청소년 차문화전 및 차예절경연대회가 지난 11월 8일 전주군지중학교에서 열렸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성공적인 대회를 준비한 한국 차문화협회 전북지부와 전주시회, 정읍지회, 남원지회, 익산지회, 익산 중부지회 등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차예절경연대회에 참가한 전국의 청소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차문화 발전에 헌신하고 계신 장안대학교 원종혜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말했다.

한국차문화협회에서는 박숙희 충북지부장과 박경숙 대구경북제1지부장이 대학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이번 심사는 옷차림과 기본예절, 절하기, 행다법으로 하고, 대상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1명과

최우수상, 우수상, 특별상, 장려상, 예절상이 시상된다. 심사 결과발표는 2025년 11월 10일 협회 홈페이지와 전북지부, 설예원 카페에 발표된다.

오후 1시 30분부터 4시까지 진행된 이번 차예절경연대회는 큰 사고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학생들이 경연대회를 펼치는 동안 학부모와 학생들은 다례 체험장에서 차를 마시고, 발 물레 시연장에서는 도자기를 만들었다. 또한 매듭공예체험에서는 매듭체험을 통해서 우리 문화를 익히는 시간을 가졌다.

협회는 지방에서 개최하는 청소년 차예절경연대회를 적극적으로 육성 발굴 지원하여 한국 차문화의 저변 확대에 전념하고 있다. ☎



규방다례

규방다례는 2002년 국내 최초로 인천광역시 무형유산 규방다례로 지정되었다. 고 이귀례 한국차문화협회 이사장을 초대 보유자로 지정하였으며, 2013년 2대 보유자로 최소연 한국차문화협회 이사장이 지정되었다.



2025년 인천시 무형유산 공개행사

규방다례 정기전승 시연

(사)규방다례보존회는 지난 2025년 11월 15일 오후 3시 30분 인천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풍류관에서 2025년 규방다례 정기전승 시연을 개최했다. 2025년 정기전승 시연에는 인천시 무형유산 규방다례 최소연 보유자와 최미리, 박광옥 전승교육사 등 규방다례 이수자와 전수장학생 등이 참석했다. 시연에 앞서 최소연 보유자는 “2025년도 규방다례 정기전승 시연을 위해 지방에서부터 올라와 주신 이수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



강정자 이수자 규방다례 소개



생활다례 나레이션에 이림 이수자와 최지원, 강희옥, 신은주, 이금숙 이수자와 최성미, 이기분 전수장학생이 시연했다.



선비다례는 나레이션 최영숙 이수자, 정경희 연규남, 최정희, 조정미, 김태임, 이명숙, 유현주 이수자가 시연했다.

기전승 시연은 우리 고유의 규방다례를 보존 발전하고, 보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천시 무형유산 규방다례로 지정되었는지 어느덧 23년째가 되었습니다. 2대 보유자인 저와 함께 전승교육사 2명, 이수자 33명과 전수장학생 2명 등 빛나는 유산을 이어받고,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오늘 정기전승 시연을 통해 일반 시민과 회원들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발전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시연을 위해 이수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인사말을 했다. 강정자 이수자의 규방다례 설명 후 2025년 무형유산 규방다례 시연 첫 순서로 생활다례를 시작으로 선비다례, 가루차행다례, 규방다례 순으로 시연되었다. ❶



규방다례 나레이션 최소연 보유자



가루차행다례는 박광옥 전승교육사, 김미숙, 이막동, 박경숙, 유미현, 하식, 문차남 이수자가 시연했다.



규방다례는 최소연 보유자, 주인 서난경 이수자, 돕는이 변명선 이수자, 손님 박숙희, 조영아, 류소영 이수자가 시연했다.



차를 나누는 사람들

지부 사랑방 (가나다 순)

경남지부 · 대구경북제1지부 · 서울제1지부
아산지부 · 인천지부 · 전남지부 · 충북지부

경 남 지 부

서산서원 백련차 찾자리

함안 탐방 프로그램 중 하나

함안 탐방 프로그램 중 하나로 서산서원에서 진행된 백련차 찾자리는 고즈넉한 전통의 공간에서 차향기와 함께 선현들의 정신을 기리는 의미 깊은 시간으로 마련되었다. 추녀 아래 그늘에서 시원한 백련차 한 잔으로 더위를 식혔다.

서산서원은 숙종 계미년(1703년), 경상도의 유학자 곽역령 등이 생육신인 이맹전, 조려, 원호, 김시습, 남효온 선생의 학문과 충절을 기리기 위해 설립한 서원이다.

이들은 사육신의 예에 따라 제향을 올려야 마땅하다는 상소를 올렸고, 국왕의 윤허를 받아 서원을 설립했다.

숙종 39년(1713년)에는 국가로부터 제물과 현관을 하사받으며 공식적인 서원으로 자리매김하였



으나, 고종 때 서원철폐령으로 훼손되는 아픔을 겪었다.

이후 1984년, 조려 선생의 후손들이 뜻을 이어받아 사우, 강당, 재료, 문, 원장 등을 온전히 복원하여 오늘날의 모습을 되찾았다.

글_전문사범 김돌자



지부장 황미경

사상의학자 이제마 한방차 시음회 찾자리

생맥산을 통해 기운을 북돋우다

이번 여름, 사상의학자 이제마 선생님의 뜻을 기리고 그 정신을 오늘에 되살리고자 마련된 한방차 시음회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성황리에 열렸다. 띄약별 아래에서도 많은 시민과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부스를 찾아와 한 잔의 차에 마음을 기울였다. 작고 단정한 찻잔 하나였지만, 그 안에는 오랜 전통의 지혜와 정성이 깃들어 있었고, 한모금의 차가 전해주는 깊은 향과 따뜻한 마음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이번 시음회의 주인공은 생맥산(生脈散)이었



다. 생맥산은 예로부터 여름철 더위로 인해 기운이 약해지고, 땀으로 인해 진액이 소모될 때 복용하던 전통 한방차로 잘 알려져 있다. 인삼은 떨어진 원기를 보충하고, 맥문동은 마른 몸에 수분과 진액을 채워주며, 오미자는 밖으로 새어나가는 기운을 단단히 붙잡아준다. 세 약재가 서로 균형을 이루어, 지친 몸에 은은하고도 깊은 생기를 불어넣는다.

글_전문사범 정재윤

72기 사범반 육대 다류 교육

차의 분류와 음용법

창녕함안보를 지나 낙동강을 굽어볼 수 있는 멋진 풍경을 품은 곳에 경남지부 창녕지회가 있다. 정연상 창녕지회장의 차교육은 일반인들에게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차음식경연대회 대상에 빛



나는 다식도 인기이다. 목책철관음을 시작으로 백차는 백모단, 월간백차를 마시고 녹차는 화후차와 우전차를 청차는 송호고랭차와 대우령, 유기(농)오룡을 황차는 군산은침, 광산향아, 사천황차를 맛

보았다. 홍차는 기문홍차, 정산소종, 금준미와 흑차는 소청감(진피흑차)과 궁정보이차를 맛보았다. 지회장이 우려주는 귀한 명차를 마시며 귀에 쫄쫄

들어오는 자세한 설명으로 겨드랑이에 바람이 이는 시간이었다. 또한 다식, 차생활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고품격 교육이었다. 글_기 사범반 전선숙

함안복합문화관에서 실천 중심 다례교육 진행 서당실에서 어린 새싹들의 다례체험

지난여름, 함안복합문화관 서당실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한 다례체험이 열렸다. 이번 프로그램은 명림지회 조희옥 지회장의 지도로 진행된 실천 중심의 예절교육 프로그램으로, 어린 새싹들이 전통예절을 몸소 배우며 인성을 함양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행사는 실제 서당을 체험 공간으로 활용해 진행되었으며, 참가한 어린이들은 차를 우리고 마시며 예(禮)의 의미와 바른 자세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전통예절의 정신을 통해 아이들이 바른 마음과 예의를 지닌 인재로 성장하길 바라며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의 밝은 눈빛을 보며 보람을 느낀 시간이었다.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한 안선희 전문사범은 아이들이 예절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배우며 성장하는 미래의 새싹들이라 더욱 세심하게 교육하였다 한다. 우리 차문화를 통한 인성교육의 저변을 더욱 넓혀가는 활동을 계속하고 싶다.

글_이사 조희옥



대구 경북 제1지부

인설차문화전에 하나가 된 대구경북제1지부 헌신과 배려를 통해 차인으로 거듭나다



지부장 박경숙

새벽부터 회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대구에서 오전 7시에 인천을 향해 출발했다. 버스에 오르자 회원들이 준비한 조식과 간식으로 떡과 과일 등이 푸짐하게 놓여있다.

인천에서 열리는 제26회 인설차문화전 차예절경연대회에 가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준비한 회원들이 마냥 고맙다. 그들의 얼굴을 보니 함께 할 하루가 즐겁기만 하다. 또한 차예절경연대회에 참가자들에게 힘껏 응원을 보냈다.

인천에 오전 11시에 도착했다. 인천도호부관아 부스에는 대구경북제1지부 현수막이 걸려 있고, 전문사범 교육생 이국주가 황차, 권영희가 가루차 등을 회원들과 함께 찾자리를 준비했다.

회원들의 모습이 너무나 정겹다. 경연대회가 끝나

고 심사하는 동안 풍류관 강당에서는 공연이 펼쳐졌다. 공연을 보면서 하루의 피곤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심사가 늦어져 힘은 좀 들었지만, 우리 지부는 이를 통해 하나가 되는 기회가 된 것 같다.



전통혼례식에 찻자리 마련 잔칫날에는 우리의 찻자리 필요하다

대구경북제1지부 회원 자녀가 10월 25일 향교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가을하늘은 높고 푸르고 날씨도 너무나 좋은 날. 가을 향기가 속삭여 준다. 우리 지부 회요반 회원들은 한복을 입고 참석해서 찻자리를 정갈하게 깔았다. 혼례의 현장 체험 너무 좋은 기회다. 꼭 필요한 자리에 찻자리가 있어서 더욱 빛이 나는 행사인 건 분명했다.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손님들은 차를 마시며 여유로운 잔치 한마당을 즐긴다. 혼주와 신랑 신부도 너무나 흡족해했다. 회원들도 함께 잔치 한마당을 즐기며 빛나는 결혼식 자리에 차가 함께 있어 더욱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준 것 같아 뿌듯한 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전국 차인 여러분 잔칫날은 찻자리가 꼭 필요하다.

다식 만들기 수업 진행 추석을 맞이하여 전문사범과 지도사범



대구경북제1지부는 며칠 남지 않은 추석을 앞두고 다식을 만들어 보기로 하였다. 전문사범과 지도사범 교육생들이 서로 협조하며 다식을 정갈하게 만들어 낸다. 스스로 짚은 다식으로 차를 내려고 하니 벌써 마음이 설레는가 보았다.

다. 회원 모두 눈이 반짝반짝 빛이 난다.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수업 시간을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올 추석엔 차와 다식을 앞에 두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되리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흐뭇하다.

서울 제1지부

한국의 차문화로 선정, 5주간 강좌를 열다 2025년 군포시 문화살롱을 마치고



지부장 이기분

도자기 제작의 즐거움과 차생활의 유익함을 알고 싶어서 도자기에 담은 한국의 차문화를 주제로 응모하여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군포시 문화살롱에 선정되었다.

지난 8월 15일부터 5주간 찻잔과 잔 받침 만들기, 다화꽃이 사각수반 만들기, 연리문 꽃접시 만들기 등을 펀칭기법, 흙가래기법, 판성형기법 등으로 만들고 백련초, 단호박, 흑임자 등을 이용하여 5색 전통다식도 만들고, 간단하게 전시회도 하고 차회도 열었다.

우리의 작설차, 청태전을 비롯하여 중국 여행에서 구매한 대홍포와 정산소종, 봉황단종, 대만서 구매한 동방미인, 아리산우량장, 내가 직접 만든 유자쌍화차와 작약차, 목련꽃차 등을 시음하고 우리의 차문화와 인사예절, 차를 마시는 법, 차의 유래와 효능, 찻자리 연출법, 차 우리는 법 등을 가르쳤고, 오이 샌드위치도 만들어서 영국식 애프터눈 티를 소개했다.

도자기와 차문화에 관심이 있으나 여건이 안 돼서 접해볼 수 없는 분들과 작품활동을 하며 소통과 교류를 원하는 분들이 참석하셨는데, 우리 도자기의 아름다움과 우수성, 차생활의 유익함과 창작의 즐

거움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다. 수업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여러 사람을 만났고, 친환경수반을 만들면서 자연환경을 생각하게 되었고 다식을 만들면서 인스턴트와 빨리빨리 문화의 폐해, 건강식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가르치려다 보니 공부가 재미있었다.

결원이 생길 때마다 달려오셔서 동참해주신 이기분 지부장님의 배려로 무사히 잘 마쳤다. 도자기 좀 더 잘 만들고 싶어서 배운 차공부는 제가 배풀고 나눔을 할 수 있는 장을 열어준 제 인생의 선물이다.

글_전문사범 박성숙



제26회 전국 인설차문화전 차예절경연대회를 준비하며

11년째 차예절경연대회에 참가하다

11년째 청소년 차예절경연대회에 초등부 학생들과 참여하며 긴장감을 즐기고 있다. 하지만 올해는 11월 1일이 지역축제 일정과 겹쳐서 지도만 하고 당일에 보호자와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초등 때부터 했던 배웠던 학생들이 어느덧 중등부와 고등부가 된 남매를 이번 대회에 참가시켰다. 남매는 코엑스와 차인 큰잔치 등 무대에도 공연한 친구라 믿고 보냈다. 현재 초등 2학년과 4학년인 친구 2명이 경험이 많지 않아 잘할지 염려되었지만, 실력과 운도 본인의 몫이라 참여하는 데 의미를 두자며 참여를 독려했다.

그중에 4학년 친구는 작년 첫 경험에 우수상을 받아 올해는 최우수상을 목표 삼아 본인이 엄마를 설득하여 참여하게 되었다. 결국 목표 달성을 했다. 차예절경연대회에 다녀온 뒤 통화하니 목소리가 상기되어 기분 좋게 통화하였다.

그렇지만 올해 처음 참여한 2학년 친구는 응원팀(엄마 지인 가족)까지 동행하여 본인 이름이 불리지 않고 행운권도 안 되어 속상해하며 집에 갔다는 소식에 안쓰러웠지만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었기에 각자가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이 산교육이었길 바라는 마음이다. 남매도 역시 최우수상을 받아 서울 1지부와 다정(김미경 다호) 다레, 각 학교의 대표성으로 이름을 호명 받아 자존감 높이는 데 으쓱해졌을 거라 생각한다.

나 역시나 함께하는 청소년 친구들과 동행의 길이 같은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며 10년, 20년, 30년의 시간을 보내고 스스로의 세계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를 바란다!!

글.전문사범 김미경



아 산 지 부

‘제5회 토정을 기리다’에 찾자리 개최

아산지부 생활다레로 관람객들에게 차문화 알려



지부장 김태임

토정 이지함 선생의 탄신 508주년을 기념하는 ‘2025년 토정 문화예술제’의 특별 행사로 ‘제5회 토정을 기리다!’가 지난 9일 아산 토정관 야외무대에서 개최됐다. 이날 제5회 토정을 기리다 행사에 아산지부 김태임 지부장과 전문사범 등이 생활다레 시연을 선보여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재작년에는 아산지부에서 선비다레 시연과 궁중복식 한복 패션쇼를 무대에 올려 큰 호응을 얻었다. 관람객들은 쌀쌀한 날씨에 온몸을 녹여주는 따뜻한 차 한 잔이 이렇게 맛있을 줄은 몰랐다고 감사함을 표시했다. 토정 이지함 선생은 조선 중기의 학자로, 실학의 선구자로 평가받으며 실용적 경제관념과 백성을 위한 목민관 정신으로 현재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있다.



영인산 박물관 수목원에서 특강

어르신들께 차문화 특강을 하다

햇살 좋은 가을날 영인산 박물관 시니어 프로그램에서 아산지부가 다례특강을 했다. 수강생 대부분은 70대부터 90세 어르신들이었다. 다례특강에서는 직접 차를 우려 마셔보기, 차맛 발표하기, 커피와 녹차 비교하기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수강생 중에는 차생활을 오래 하신 분도



계셨고, 커피만 드셨다는 분, 녹차를 처음 마셔본다는 분 등 다양한 분들이었다. 김태임 지부장은 차의 효능에 관해 설명했고, 우리 차가 정신적인 부분과 건강에 얼마나 좋은가를 차근차근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외암마을 다례교실 진행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토, 일 진행

아산지부는 외암리 상류층 가옥에서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다례체험 프로그램을 끝냈다. 초등생부터 일반인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상류층 가옥 안채 마루에서 진행된 이번 체험에는 다양한 분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차를 설명하고 정성으로 차를 우려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외암마을 다례교실에서는 다례체험뿐만 아니라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대청마루에서 마시는 차 한잔은 서로 배려하고 소통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이곳에서 차를 마신 분들은 차와 좋은 인연이 되었다며, 앞으로 차문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겠다고 다짐했다.



독성서원 배향인물 학술대회 찾자리 마련

녹차, 황차 등 차문화 홍보

충남 아산 영인면 소재 토정관에서 지난 8월 22일 '독성서원 배향인물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에는 각 분야 전문 교수님들의 학술 발표와 지역 유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아산지부는 김태임 지부장의 인솔로 전문사범과 회원이 황차, 녹차, 연꽃차 등을 마련했고, 오방색 다식과 과일 등으로 우리의 아름다운 차문화를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학술대회에 참석한 외부인사와 유림 등은 우리의 아름다운 차문화가 더욱 성장 발전하기를 기원한다고 응원을 보내주었다.



인천지부

추석맞이 민속문화 체험마당 찾자리

사범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차문화 보급

10월, 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며, 한글날인 10월 9일에는 인천도호부관아에서 <추석맞이 민속문화 체험마당>행사가 열렸다.

덥지도 춥지도 않은 맑은 날, 연휴 끝자락에 생각보다 많은 가족 단위의 방문객이 행사장을 찾아오셨다.

투호놀이, 제기차기 등 전통놀이체험과 청사초롱 만들기 등 전통공예체험뿐만 아니라 쉽게 접할 수 없는 단소 만들기, 단청그리기 등 무형유산체험을 통해 우리나라 민속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어린이들이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족과 추석을 보내고 휴식을 취해야 할 연휴 마지막 날, 인천지부 사범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따뜻한 차와 떡을 준비하여 방문객들에게 대접할

수 있었다. 몸은 힘들었지만, 사범님들과 즐기며 함께 나누다 보니 마음이 따뜻해지고, 추석 연휴를 뿌듯하게 마무리한 것 같다.

글_전문사범 이윤희



지부장 최지원



가천문화재단 제9회 과거시험 재현행사

인천지부 사범회 전통 찾자리 운영

가천문화재단이 주최한 제9회 조선시대 과거시험 재현행사(등용문登龍門)가 지난 10월 25일 도호부관아에서 개최되었다. 초등학교 150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문과 전시의부터 방방의에 이르는 조선시대 과거시험의 전 절차를 그대로 재현하며, 어린 학생들에게 전통의 가치와 창의적 글쓰기의 의미를 체험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으로 마련되었다. 과거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행사장 곳곳에서는 다양한 전통놀이와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참가 참가학생과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펼쳐졌다. 전통문화를 더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된 체험 부스들은 많은 방문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행사에서 인천지부 사범단은 전통다례를 바탕으로 한 전통 찾자리 운영을 맡아 행사의 품격을 더했다. 사범들은 정갈한 다구 배치와 올바른 다례

절차를 선보이며 방문객들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하였고, 차문화의 예절과 정신을 자연스럽게 전달하였다.

특히 차를 처음 접하는 어린 참가자들도 많아 차를 따르고 나누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레 예절과 정중함을 배우는 교육적 효과도 있었다.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은 가을 햇살 아래 펼쳐진 도호부관아의 고즈넉한 풍경과 어우러진 찾자리에서 잠시 머물며 향긋한 차향과 여유를 즐겼다. 전통 과거시험 재현행사에 차문화까지 더해져 더 깊이 있는 전통 체험이 되었다는 긍정적 반응도 이어졌다.

앞으로도 지역문화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차문화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글_전문사범 마숙경



전 남 지 부

전 국민과 함께하는 희망 나눔 들차회 차향 따라 걷는 길



지부장 서난경

해남 대흥사의 아침은 고요했다. 가을빛이 은은히 물든 산사의 공기 속으로 술향이 스며들고, 낙엽 밟는 소리가 마음을 맑게 했다. 지난 10월 25~26일은 ‘전 국민과 함께하는 희망 나눔 들차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절 마당 곳곳에는 찻상이 놓이고, 다구를 정돈하는 손길이 분주했다.

고즈넉한 산사의 풍경과 다인들의 정갈한 자태, 그리고 부드러운 움직임이 어우러져 그 자체로 한 폭의 수묵화 같았다. 나는 이번이 첫 참여였다. 며칠 전부터 은다기를 닦으며 찻자리를 준비할 생각에 설레고 긴장됐다. 하지만 막상 행사 당일이 되니, 차를 우려 대접하기는커녕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도 몰라 당황스러웠다.

그때 서난경 지부장님께서 다가와 “오늘은 공부한 다 생각하고 천천히 해보면 돼요.” 하시며 꽃잎 하나 꽃는 법까지 세심히 알려주셨다.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긴장이 스르르 풀렸다.

결국 이날 나는 ‘신입 구경꾼 모드’였다. 이 다전지 다전을 돌며 선배님들의 손놀림을 구경하고, 차 한 잔씩 얻어 마시며 그 향에 취했다. 잔을 들 때마다 “차는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건네는 거구나.” 그 마음을 조금씩 배워갔다.

한쪽에서는 선비님들의 다도 시연이 펼쳐졌다. 고요하게 차를 우리는 손끝, 물을 붓는 자세 하나에도 수십 년의 세월과 품격이 고요히 스며 있었다. 그 옆에서는 어린 학생들이 두 손으로 잔을 들고 공손히 인사를 올렸다. 세대를 잇는 그 모습이 참 따뜻했다.

차 한 잔을 매개로 나이와 직분, 경험이 모두 하나로 이어졌다. 그 속에서 나는 배우는 기쁨을 느꼈다. 차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대흥사 들차회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었다. 그곳에는 배움이 있었고, 나눔이 있었으며, 사람과 사람이 이어지는 진한 향이 있었다. 차향 따라 걷는 길 — 그 길은 결국 마음을 따라 걷는 길이였다.

글_2급 교육생 박화영



전남지부 다동이들, 인설차문화전서 전원 수상 열정과 정성이 빚어낸 아름다운 결실

2025년 11월 1일 열린 인천도호부관아에서 열린 인설차문화전에는 전국에서 150여 명의 참가자가 참여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차문화협회 전남지부 다동이들은 빼어난 예절과 안정된 다도 실력으로 주목받으며, 대회에 참가한 초·중등부 전원이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전남지부 다동이들은 초·중등부 부문에서 최우수상 3명, 우수상 1명, 장려상 1명을 수상하며, 차를 향한 열정과 꾸준한 노력이 결실을 보았다. 이번 성과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지난 10월 26일 보성에서 열린 차예절 경연대회에서의 값진 경험이 밑거름된 결과였다. 그때의 경험은 아이들에게 자신감과 예절의 본 뜻을 몸으로 익히게 한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무엇보다 부모님들의 뜨거운 열의와 지도자들의 헌신적인 열정이 이번 성과를 가능하게 했다. 차를 통해 아이들이 마음의 평온과 배려를 배울 수

있도록 늘 응원해 준 부모님들, 그리고 지부장님과 지도 이사님 간의 돈독한 신뢰와 협력은 다동이들이 마음껏 성장할 수 있는 든든한 바탕이 되었다. 특히 아이들의 변화된 모습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던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한복을 입고 찻자리에 앉자, 마치 조선시대 사대부가에서 예절교육을 받은 선비처럼 차분하고 단정하게 차를 내리는 모습은 매우 이상적이었다. 초·중등 여학생들이 청바지를 입고 머리를 풀었을 때와 달리, 머리를 곱게 따고 한복을 차려입고 차를 내리는 모습은 양반가의 규수처럼 품위 있고 단아한 자태를 뽐냈다. 그들의 모습에서 차 교육이 만들어내는 내면의 성숙과 마음의 평화가 고스란히 느껴졌다.

학생들을 지도하신 김경자 이사님은 헌신적인 교육 활동을 인정받아 ‘지도자상인 ‘차꽃상’을 수상하였다. 김 이사님은 “아이들이 차를 통해 마음의



평온과 배려를 배우며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대회에서는 신입 교육생들을 중심으로 한 찾자리 봉사도 함께 이루어졌다. 전남지부에서 준비한 차는 참가자들로부터 “차맛이 좋다”는 호평을 받으며 문진성시를 이루었다. 그 차맛의 비결은 평소

지부교육장에서 2주에 한 번씩 이어온 이론 교육과 품평 수업의 결실이었다. 다우님들이 내린 한잔의 차에는 그동안 배워온 이론과 실습 내용이 고스란히 스며 있었고, 거기에 정성을 더하니 맛과 향이 더할 수밖에 없었다.

글_지도사범 교육생 박성혜

해남에서 15년 만에 되살아난 ‘선비다례’의 향기

행다법을 통해 소통하는 법을 배우다



해남군이 주최하고 초의문화제 추진위원회가 주관한 제34회 초의문화제 전야제에서, 오랜 세월 잊혔던 ‘선비다례’가 15년 만에 부활하며 관람객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이날 무대에서는 한국차문화협회 2급 4학기 과정의 다우 한정주, 김홍길, 윤선웅, 송필용 교육생이 ‘선비다례 시연’을 선보였다. 시연의 나레이션은 같은 과정의 김수진 다우님이 맡아, 선비정신과 차의 철학을 고요하고 품격 있는 목소리로 전하며 행사장에 잔잔한 감동을 더 했다. 이번 시연은 전남지부 서난경 지부장님의 세심한 지도와 헌신적인 준비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차를 통한 인성 수양과 정신 수련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로

평가받았다. 이번 선비다례 시연은 15년 이상 명백이 끊어져 있던 선비다례의 전통 재현을 넘어, 해남이 한국 차문화의 성지로서 후배 양성에도 힘쓰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무대였다. 한국차문화협회 전남지부는 해남군과 협력하여 앞으로도 지역의 청년과 차인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육과 교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한국 차문화의 맥을 더욱 굳건히 이어갈 계획이다.

서난경 지부장은 15년 만에 다시 피어난 선비다례의 향기가 초의선사의 정신처럼 은은하고 깊게 번져, 해남이 한국 차문화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글_지도사범 교육생 박성혜

충북지부

사범회 2학기 개강식 하다 다포만들기로 우의를 다지다

9월 22일 효동원에서 개강식을 했다. 2학기 계획을 협의한 후, 김선경 전문사범의 지도로 ‘다포만들기’를 하며 서로 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바느질 재료를 세심히 준비해 주신 김 사범님, 늘 차를 준비해 주시는 지부장님이 매우 고마웠다.



지부장 박숙희

2학기 사범교육반 개강하다 9월 20일 효동원에서 개강

사범교육반은 2025년 2학기 개강식을 9월 20일 가졌다. 우리 교육장 효동원(孝東院)에서 2학기 수업



계획을 의논 후 서로 일정을 맞추며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고추장만들기로 화합의 장 마련하다

회원 간 화합의 자리가 되다

10월 12일 노군자 전문사범 농장에서 고추장만들기 체험을 하였다. 노 사범의 지도로 유기농 고추장을 맛있게 만들고, 농원에서 고추, 감, 채소들을 따며 살림 장만을 풍족히 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다. 야유회에 빠질 수 없는 삼겹살은 지부장님이 준비하셨고, 찰밥, 부침개, 다양한 반찬을 넉넉히 골고루 준비해 주신 노 사범의 배려로 웃음이 떠나지 않은 화합의 시간이었다.

사범회 가을 야유회로 즐거운 시간 갖다

청주 미동산 수목원에서

10월 9일 청주 미동산 수목원으로 가을 야유회를 다녀왔다. 수목원 앞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수목원을 돌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시원한 가을바람이 상쾌하여 더욱 즐거운 나들이였다.



사범회 11월 모임 갖다

한시와 전래놀이를 배우다

11월 17일 효동원에서 11월 사범회를 가졌다. 맛있는 차를 마시며 1부는 지부장님의 지도로 차명상 후 한시(漢詩)를 감상했다.

2부는 허운숙 전문사범의 지도로 활동적인 전래놀이를 배우며 몸을 풀었다. 월 1회 모이는 사범회가 점점 정답고 즐겁다. 시간을 못 내는 사범들이 더 많이 합세하기를 바라며 다음 모임을 기약하였다.



청주시립도서관에서 특강 진행하다

책과 차가 만나는 시간으로 진행

박숙희 지부장은 11월 4일 청주시립도서관 강당에서 청주시 작은 도서관 관장들을 위한 특강을 진행했다.

<책과 차가 만나는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1시간



40분 동안 진행된 특강은 이론과 녹차, 홍차를 마시는 시간을 곁들여 참가자와 담당자들의 좋은 호응을 얻었다.

2025년 12월 자격검정 시행 공고

- 접수: 2025년 11월 24일(월)까지
- (사)한국차문화협회 홈페이지 민간자격 (www.koreatea.or.kr)
- 전형료 : 국민 827-25-0015-983 / (사)한국차문화협회

구분	필 기	실 기	장소 (교육장 주소)
1급	2025년12월6일(토)	2025년12월20일(토)	협회 (마포구 월드컵로13길34,3층)
2급 (3급)	2026년1월10일(토) 2026년1월17일(토)	2026년 1월 10일(토) 2026년 1월 17일(토)	차생원 본점 2층 (광주 동구 의재로 100, 2층) 협회 (마포구 월드컵로13길34,3층)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1급, 2급, 3급) 등록번호(제2010-0264호)

전형료	■ 1급 : (필기,실기) 10만원+4만원(추가) (사범연회비, 우송료 추가)
	■ 2급 : (필기,실기) 8만원+4만원(추가) (사범연회비, 우송료 추가)
	■ 3급 : (필기,실기) 6만원

인성교육예절지도사(2급) 등록번호(제2015-005314호)

전형료	■ 2급 : (필기,실기) 8만원
-----	--------------------

청소년인성예절지도사(단일등급) 등록번호(제2015-005316호)

전형료	■ 단일등급 : (필기,실기) 8만원
-----	----------------------

※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 민간자격 공지사항 참조 (www.koreatea.or.kr)

- 자격검정 최종 발표 : 2026년 1월 22일(금)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
- 환불규정 : 응시료 - 접수마감 전까지 100% 환불 / 검정 당일 취소 시 30% 공제 후 환불
- 자격관리기관정보 - 기관명 : (사)한국차문화협회 / 대표자 : 최소연
- 연락처 : (02) 719-7816 / 이메일 : koreatea1991@naver.com /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13길 34, 3층

(사)한국차문화협회가 주최하는 '등록민간자격 자격검정' 시행을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차인들의 향기 넘치는 이야기, '차문화'에 담고자 합니다

<차문화>는 언제나
독자 여러분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사람 냄새나는 생활 속 이야기, 시,
수필, 기행문, 논문 등 종류에
관계없이 사무처로 보내주시면
예쁘게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차문화지는 무가지로 발행되며 발송료는
연 1회, 1만 원입니다.
회원은 각 지부에 신청부탁드립니다.

정기 우송료 10,000원(1년)
국민은행 827-25-0015-983
예금주 (사)한국차문화협회

보내주실 곳

(사)한국차문화협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13길 34, 3층
(우)04012
Tel : 02-719-7816~7
Fax : 02-719-7815
이메일 : koreatea1991@naver.com

여러분의 관심이 협회 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한국차문화협회 정관 제46조(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및 공익성 기부금
지정단체 운영 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25년 8월~ 2025년 11월 본 협회에
기부 된 내역과 협찬물품을 공개합니다.

협회 발전 찬조금

이사장 · 최소연 (9,300,000원) 이사 · 서명주 (100,000원)
이사 · 서울제1지부 임원 일동 (200,000원) 전북지부 · 전북지부 (200,000원)

특별회비(임원)

이사 · 심순옥 (1,000,000원) 강원지부장 · 김미숙 (500,000원)
순천지부장 · 김영애 (500,000원) 보성지부장 · 이정희 (500,000원)

특별회비(사범) (30,000원)

강원지부 · 박길자, 박찬양
광주지부 · 주미경, 노혜련, 박점희
서울제1지부 · 전혜선, 황은주
수원(동수원)지부 · 권지령, 조변주, 정옥연, 송은정, 김미영, 김지원, 장성임, 박정애
전남지부 · 송순덕, 이애숙, 조애순, 김영숙, 박명숙, 김경희, 서정인, 성애숙, 서희수,
위인숙, 이은영, 옥일화, 이미례, 이은숙, 양선례
전북지부 · 유지혜, 정성복, 주순옥, 김찬림, 김찬순, 김 달, 육정화, 문정엽, 김은성

한국차문화협회 차문화지 2025년 9월~ 2025년 11월 우송료 납부자 명단

9월 통장 입금

서울 · 박혜영 / 수원 · 권지령 / 인천 · 신행자, 허재현, 윤미란, 양수남, 신경덕, 황진선

10월 통장 입금

대구경북제1 · 이미숙 / 수원(동수원) · 조병주, 김미영, 정옥련, 송은정, 김지원 / 서울제1 · 류
보미, 박은주, 류기선, 이미선

11월 통장 입금

강원 · 박찬양, 박길자 / 경남 · 임하늘, 강순미, 김지원 / 광주 · 주미경, 박점희, 노혜련 / 서울
제1 · 황은주, 전혜선 / 서울제2 · 이주현 / 수원 · 장성임, 박정애 / 전남 · 성애숙, 위인숙, 송순
덕, 이은영, 조애순, 이애숙, 김영숙, 서정인, 서희수, 김경희, 옥일화, 이은숙, 이미례, 박명숙,
박성혜, 안서영, 고영숙, 김효진, 양선례 / 전북 · 김선아, 김찬순, 문정엽, 육정화, 김 달, 정성
복, 김찬림, 김은성, 최윤금, 이수현, 이은실 / 충북 · 김민석, 조은영

전통수제차의 명가 햇차원이 만듭니다.



수상내역

2001 경상남도 우수벤처 농업상 수상

2003 "햇차원"으로 사명변경

2005 ISO 9001 국제품질경영시스템 인증획득

2007 유기농 인증획득

벤처기업 인증서 획득

2008 진주 바이오21센터 내 연구실 개소



다맥전수자 이경숙님

200년을 이어온 제다기술로 장인의 손에서
세상에서 둘도없는 명품차를 만듭니다.

햇차원 | 경남 하동군 악양면 정서길 202 전화: 055-882-0000



차 부문 전통식품 명인지정!

카푸치노 같은 거품이 나는 가루차!

누가 분쇄기를 쓰지 않고
맷돌로 갈까요?



한국제다는 전남 영암, 장성, 해남에 10여만평의 다원을 가지고 우리 차를 직접 만듭니다.

57년 차를 만들어온 경험으로 차를 알고 차를 만듭니다.

우리 차의 정신- 한국제다가루차

한국제다

제품 상담: 062)222-2902